



하반기 49일 불공 원만 회향

각 교구별 방생법회도 열려



▲서울 경인교구 방생법회 후 열린 연극 공연.

불교총지중은 7월 15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사원에서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총기 37년 하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 회향불사를 봉행했다. 총지중 고유의 수행법인 49일 진호국가불공은 밀교의 호국경 전인『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

거한 것으로 총기 4년(1975년) 4월 22일 진호국가불사의례를 제정하고 당해 5월 5일부터 1주간 국가안보를 위해 정진한 것에서

부터 비롯됐다. 한 해 상·하반기 각 49일간 2회 실시된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은 호국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경전으로, “정법을 흥포하고 선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국위가 선양되어 백성들이 안락하고, 국권이 튼튼하며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밀교 고승 명랑 법사와 해통국사를 비롯하여 고려의 많은 승려들이 이 경을 호국불교경전으로 신봉해 왔다.

한편 이번 49일 불공회향 행사의 일환으로 7월 16일과 17일 각 교구별 방생법회도 열렸다.

서울경인 교구가 총난 당진 왜목마을에서, 부산경남 교구 경기도 여주 강변 유원지, 대구경북 교구와 충청전라 교구가 경북 상주 경천대에서 각각 행사를 실시했다.

효강 종령예하는 서울경인 교구장 법등 정사가 대독한 법어

에서 “방생 의식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일깨우고 간담심을 보리심으로 전환하는 정성스런 일”이라며 “우리 진언행자들은 이번 방생법회를 통해 생명존중 사상을 고양하고 아울러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불사에 무무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설했다.

김은숙 신정회 서울경인 지회장은 발원문에서 “방생은 목은 죄업을 참회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의 자비심을 배우는 자리”라며 “이번 방생법회에 동참한 공덕으로 나와 모든 중생이 모두 해탈 성불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방생법회는 대비로자나 불전 호법, 유가삼밀, 봉행사, 자비방생의 노래 합창 등으로 진행됐으며, 본 행사 후 교구 산하 사원 스승과 교도 등의 장기지랑 행사가 함께 열려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관련기사 10면〉

총지 지역아동센터 추진

어린이 포교 활성화 도모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방과후 학습을 하고 있다

총지 지역아동센터가 이르면 가을 중 개원할 예정이다. 현재 신축 중인 건물에 입주할 총지 지역아동센터는 앞으로 지역사회 저소득자와 생활수급자, 맞벌이 부부 아동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공무방의 새로운 명칭으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가정 빈곤, 부모의 가출, 맞벌이 등으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물질적, 정신적 서비스의 제공 등이 있다.

이번 총지 지역아동센터 개원 운영은 부산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총지중 어린이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지중 청소년 수련법회 회향

“올바른 가치관 정립 계기”



▲여름 학생 수련회 기념 촬영.

총지중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2차에 걸쳐 경남 남해 한려유스호텔에서 여름 청소년 수련법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8회차인 이번 수련법회에선 종단산하 전국 각 사원의 어린이와 청소년, 종립 중학교 학생, 교도 가족, 자원봉

사자 등 5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수행과 공동체 교육, 자연탐방 활동 등의 주제별 프로그램으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

선 입제식과 종단소개를 비롯해 모든 활동, ‘몸마니반메움’ 사경, 조식 정송, 염주만들기, 바다 래프팅, 장기자랑, 등이 다양하게 실시됐다.

원승 통리원장은 입제식에서 “수련법회에 동참한 어린이가 청소년 여러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방향을 보람있게 보내는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부장 경원 정사는 회향식에서 “이번 수련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모두 부처님과 인

연공덕이 많은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배움과 참고,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련회 최연소 참가자인 대구 개천사 박재성 어린이는 “형과 누나들이 잘 대해줘서 힘들지 않았고 바닷가 보트놀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종단의 한 실무자는 “이번 수련법회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총지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긍정적 사고 방식과 화합 단결 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련화보 12면〉

종조법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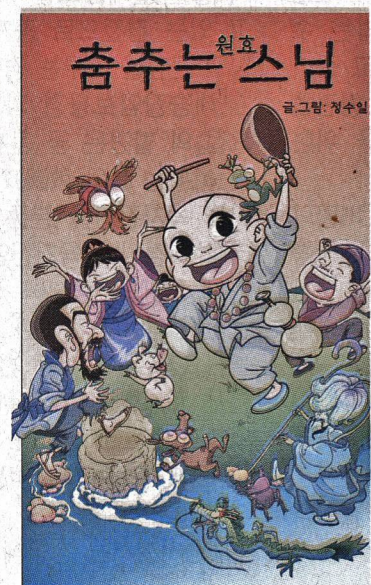
물(物)과 심(心)의 이원 원리

물질 일어나는 때는 탐진치(貪瞋癡)도 일어나고 탐진치가 치성하면 성품이 곧 어두워서 일체병폐 생기므로 이때에는 누구라도 지혜롭게 되는 교를 믿고 행해 나가야만 그 가정을 보존하고 장원(長遠)하게 이어간다.

-종조법설집 수행편

‘춤추는 원호스님’ 출간

visual밀교 <천수경> 작가 정수일 씨



가르침을 알차고 흥미있게 그려 내 독자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고승열전시리즈 만화 ‘왕눈이 스님’을 출간한 바 있는 정수일 작가는 “불교만화는 특수한 만화장르로 자칫 딱딱하고 교훈적인 내용이 되기 쉽지만 이번 만화는 원호스님이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무언가를 지어 춤추고 노래하며 부처님 말씀을 알렸듯이 모든 내용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그렸다”고 말했다.

정 작가는 또 “원호스님은 신라시대의 고승이자 우리 불교계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스님”이라며 “민중과 함께 하는 대중불교의 가치를 높이 들고 대중의 편에서 서서 동거동락 하신 분”이라고 덧붙였다.

총지중보에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밀교 <천수경>을 연재하고 있는 정수일 작가가 고승열전시리즈 만화 ‘춤추는 원호스님(도서출판 운주사)’을 출간했다.

‘춤추는 원호스님’은 부처님의

어르신들 부모님처럼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어르신에게는 평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실시

총지중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가 개원했습니다.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개원은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노인은 소액의 본인부담금(총비용의 15~20%)으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보장제도입니다.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가정방문 요양서비스)는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 문의 : 02)3452-7485(016-651-805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주소 : 강남구 역삼2동 776-2

문의 : 02)3452-7485 (016-651-8053)

기 획 연 재 밀교연구소 · 종학연구실 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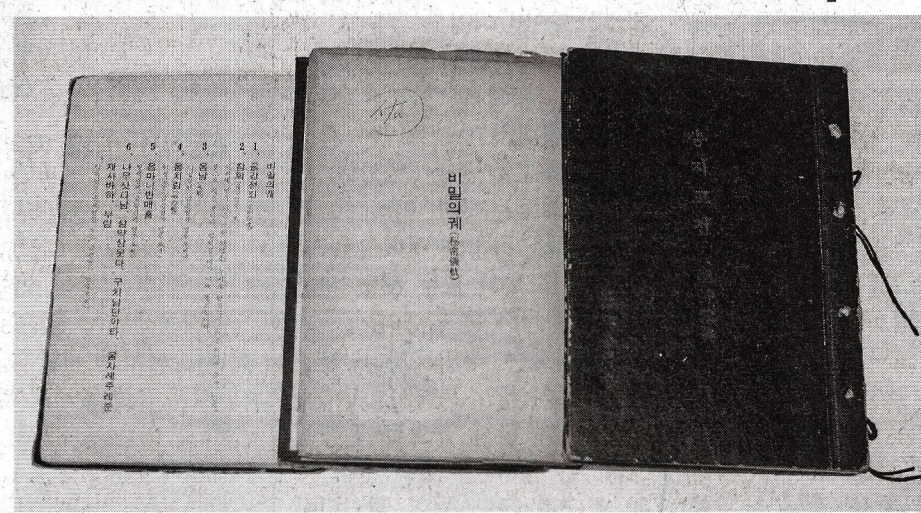
敎史를 통해 본 宗祖 苑淨 大宗師의 가르침 ②

종조 원정 대종사께서는 완전한 밀교의 교리와 의식을 갖추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교도들이 정진하여도 공덕이 없고 도리어 마장이 있음을 우려하셨다고 한다. 이에 삼밀유가(三密瑜伽修行)의 올바른 수행법을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시고 밀교종단의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을 확고히 하는 데 매진하셨다. 특히 진언염송을 통한 심신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경전탐구와 밀교의례의 정립에 몰두하셨다. 그러한 가운데 중요한 경전 문헌을 찾게 되었으나 바로『대승장엄보왕경』과『현밀원통성불심요집』의 발견이다. 이 경전과 의례집은 총지종의 창종에 일등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경계(經軌)가 있으므로 해서 총지종의 창종이 있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밀교의 역사적인 사건이요, 일대사(一大事)라 아니할 수 없다. 원정 대종사께서는 이 경전과 의례집을 찾지 못하였다면 현대 한국밀교의 중흥은 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경전과 의례의 발굴로 인하여 본종과 진언염송, 사중수법의 밀교수행과 의식이 제대로 된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종조님께서 이 경전과 의례집에 근거하여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 음마니 반메혹과 준제보살의 진언을 함께 독송하여야 상승적 공덕을 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하시고 교리적 바탕과 수행방법의 중심의례로 삼으셨다. 더 나아가 밀교의 사중수법(四種修法) 및 진호국가법(鎮護國家法)을 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통밀교종단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사중수법은 밀교의 수행작법(修行作法) 가운데 하나로서 증익법(增益法), 식재법(息災法), 경애법(敬愛法), 항복법(降伏法)의 네 가지를 말한다. 이를 호마법(護摩法)이라 한다. 호마법은 수행자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출세 깨달음에 나아가기 위한 밀교의 방법이다. 소원성취와 재난소멸 등을 위한 진언염송 기도법이다.

종조님께서 밀교의 수승한 '비밀의례'를 이미 창종 전에 완료하셨다. 창종을 위한 반반의 준비를 마쳐셨던 것이다. 1972년 12월 24일 총지종의 창종에 앞서 그해 9월 9일 '비밀불교의 의례'를 제정하고, 정식으로 공포하시면서 인쇄 배포하여 제자들과 종도들에게 비밀전수를 시작하셨다. 이 '비밀의례'는 중국 요나라 도역 선사가 찬술한 밀교의 의례집인『현밀원통성불심요집』을 근거

로 하여 독특하고 수려한 의례법을 제정하신 것이다. 오늘날 총지종 종도들이 행하고 있는 육자의례(六字儀軌)와 불사범요(佛事法要)가 바로 이 '비밀의례'인 것이다. 종조님께서 특히『현밀원통성불심요집』중에서 염송 의례법과 밀교심요(密敎心要)의 사중수법(四種修法)을 발췌하여 종단의 '비밀의례'를 창안하셨던 것이다. 한문본을 손수 한글로 번역하였다. 정순하고 완벽한 비밀불교의 의례로서 밀교종단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정확한 의례, 밀교의 삼밀수행과 사중법이 현대한국 밀교의 탄생과 함께 빛을 발하였던 것이다. 종조님께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발걸음을 내딛으셨다. 밀교종단으로서



▲비밀의례

“비밀의례(秘密儀軌)의 제정 등으로 밀교종단의 기틀을 마련하다”

대단히 중요한 경전을 발굴한 것었다. 바로『대승장엄보왕경』의 발견이었다. 이 경은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을 설하고 있는 경전으로 총지종의 교상과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경전이다.

『대승장엄보왕경』과『현밀원통성불심요집』의 발견은 곧 총지종의 씨줄 날줄을 이루는 교의(敎義)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육자진언을 본준으로 삼게 된 교리적 배경이며 육자진언과 함께 준제진언이 의례의 중심이 되는 교상관설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현밀원통성불심요집』은 총지종 법요(法要)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밀교 의례서(密敎儀軌書)다. 종단의 모든 의례(儀軌)가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종사께서는 창종에 앞서 서울 상봉

동 391-5번지에 총본산 서울선교부를 먼저 개설하고 경계(經軌)에 의한 '비밀의례'를 전수(傳授)하기 시작하였다. 대종사께서는 모든 준비를 마친후 비로소 그해 12월 24일, 정통밀교종단 '총지종'을 창종하셨다. 철두철미한 준비와 완벽한 진행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창종과 함께 만천하에 총지종의 교의(敎義)를 선포하시기를,『법신 대일여래를 교주로 하고, 육자대명왕진언을 본준으로 하여『대승장엄보왕경』과『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으며, 또한 대장계와 금강계 양계의 모든 경계를 보조경전으로 하여 삼밀(三密)과 육행(六行)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여 즉심성불을 구경(究竟)으로 한다』는 종지

(宗旨)를 표방하신 것이다. 특히 종조님은 밀교, 특유의 진호국가법으로, 북한의 재남침과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하였으니 밀교의 호국법회가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당시에는 부국강병(富國強兵)의 서원불공을 자성일(自性日)마다 올렸다. 『대승장엄보왕경』의 채택은 밀교종단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데 모자람이 없으며, 총지종의 교상과 사상을 확립하는 바탕이었다. '왜 총지종은 육자진언을 본준으로 삼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자 육자진언과 준제진언을 염송하는 교리와 의례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래서『대승장엄보왕경』과『현밀원통성불심요집』은 총지종의 교상과 사상의 양날개로서 바퀴의 앞과 뒤이자, 식탁 위의 순가락과 젓가락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

다. 어느 한 쪽이 빠지면, 그 다른 한 쪽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경계가 있으므로써 본종과 신앙의 대상, 수행의 도구로써 종제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해 9월9일 제정된 '비밀의례'는 오늘날의 불사범요와 거의 차이가 없다. 금강정좌, 참회, 음남, 음치림, 음마니반메혹, 준제진언, 서원사향, 실지정진, 흠자오인, 회향이 그대로이다. 맨뒤에 사중법이 수록되어 있다. 이후에 종조님께서 여기 '비밀의례'에 진호국가불사의례, 반야심경, 천지팔양신주경, 천수경, 선교부살단불사식순 등을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한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것이『총지교전(總持敎典)』이다.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불교총정』과『밀교장경』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내용을 점차 불러 나가면서 나중에『총지교전』가운데 '비밀의례'를 분리하여『불사식순』을 별도로 발간하였고, 경전은『불교총정』과『밀교장경』으로 나누었다.『불사식순』은 다시 오늘날의『불사범요』로 바뀌었다.

『불교총정』과『밀교장경』은 일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번역 발간되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종조님의 해안과 치밀한 계획과 기획성을 엿볼 수 있다.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불사에 임하였다'는 점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무를 보기 전에 전체 숲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듯하다. '비밀의례'의 제정으로 주옥같은 진언과 정확한 결인, 엄격한 의례와 빈틈없는 교상의 정립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총지종이 있게 된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교사(敎史)』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서울선교부를 총지종의 총본산으로 결정하고, 불사를 계속 하자 국내 도처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육자만 다라(六字曼荼羅)에 귀명하여 설단불사(設壇佛事)하는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였다.

'비밀의례'의 제정으로 명실상부한 밀교종단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물론이요 이로 말미암아 창종 당시의 교세(敎勢)가 날로 번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종조님의 정진과 열정, 창종 당시의 분위기가 온 몸으로 느껴진다.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 수석연구원 (다음호에서) 창종 당시에 모든 것을 일구시디를 연재합니다)

사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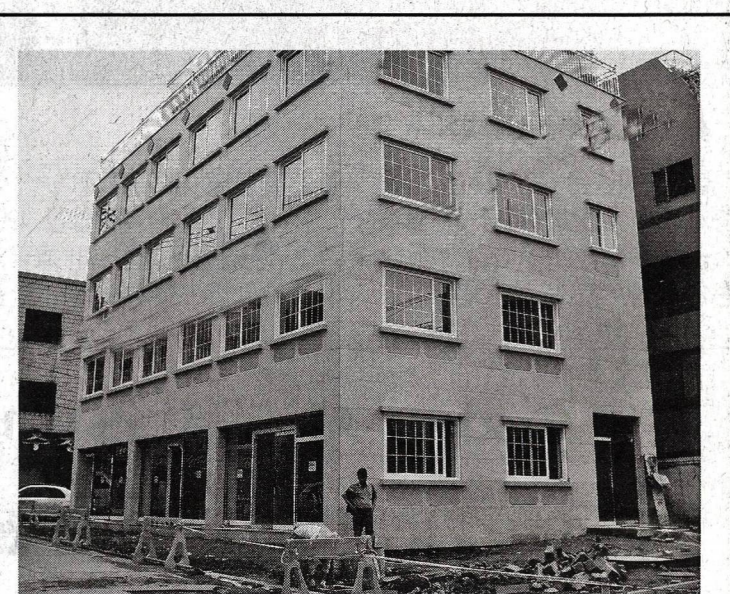
청소년 수련법회를 회향하며

청소년들을 불교에 접하게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불교가 가장 힘써야 할 분야이다. 남녀노소 모든 계층을 불문하고 포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지만 청소년 포교는 특히 중요하다. 청소년 포교는 바로 미래 한국 불교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총지종은 일찍부터 청소년 포교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어려운 중단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종립동해중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은 많이 위축되었지만 과거에는 청소년 조직을 갖춘 사원들이 많이 있었다.

청소년 포교 전통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중단에서는 매년 학생 수련법회를 개최하여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힘쓰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이며, 향후 중단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청소년 수련법회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종단의 청소년 포교의 전통에 비추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수련법회는 극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매년 청소년 수련법회가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고 조직적인 청소년 포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계자들은 지혜를 짜내고 더욱 노력해서 청소년 수련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포교로 연결되어 청소년들이 미래의 총지종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금년의 청소년 수련회를 전환점으로 청소년 포교의 전통이 더욱 잘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뿐 아니라 전 중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통리원 신축건물이 외관을 드러냈다. 지난 1월 29일 신축 지진(기공)불사를 봉행한 이래 약 6개월만이다. 통리원 옆 부지에 위치한 신축건물은 6층 건물로 1층 상가, 2층 문화공간시설 겸 사무실, 3층과 4층은 강공 및 회의실 숙소 겸 문화시설, 5층엔 지역아동센터가 각각 들어 서며 오는 가을경 완공될 예정이다.

알림방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월초불공이 봉행됩니다.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는 7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하계 방학을 실시 합니다.

▶만보사 제2회 연꽃축제가 많은 불자들의 관심 속에 지난달 22일 원만회향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통리원 2층 반야실에서 총지불교대학 강좌가 열립니다. 교도와 일반인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부산 정각사 불교입문 강좌가 열립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개천사 이회권 7.24 10,000	단음사 박주열 7.2 10,000	백월사 박인국 7.24 5,000	수인사 김봉기 7.28 10,000	정심사 김미순 7.15 10,000
개천사 경 원 7.31 10,000	단음사 이기성 7.15 3,000	백월사 박인철 7.24 5,000	수인사 공경원 7.30 10,000	정심사 박옥란 7.29 20,000
개천사 정법수 7.31 10,000	단음사 유가해 7.28 10,000	백월사 이갑진 7.25 10,000	수인사 한애숙 7.1 30,000	정심사 오윤보 7.31 5,000
관성사 해 정 7.1 10,000	단음사 안 성 7.28 10,000	백월사 류승태 7.28 10,000	시법사 환수원 7.31 10,000	지인사 허성동 7.21 20,000
관성사 정법계 7.1 10,000	단음사 이지은 7.31 10,000	법천사 김정숙 7.2 5,000	실보사 조순애 7.24 10,000	지인사 연동원 7.31 10,000
관성사 황성녀 7.25 10,000	단음사 행원삼 7.31 10,000	법천사 시 정 7.21 10,000	실보사 송희준 7.31 10,000	총지사 최순전 7.10 106,000
관성사 이혜원 7.30 5,000	만보사 민순분 7.15 10,000	법천사 원만원 7.21 10,000	실지사 송우섭 7.2 5,000	총지사 선도원 7.25 10,000
관성사 해 정 7.31 10,000	만보사 이종구 7.15 5,000	법천사 박말조 7.21 5,000	실지사 김기봉 7.2 5,000	총지사 이인성 7.29 30,000
관성사 정법계 7.31 10,000	만보사 전문희 7.28 20,000	벽룡사 이희숙 7.8 10,000	실지사 한수연 7.2 5,000	통리원 지 정 7.21 20,000
관성사 이승은 7.31 10,000	만보사 이현진 7.28 20,000	벽룡사 이성훈 7.17 100,000	실지사 이화수 7.21 10,000	해정사 최영례 7.14 10,000
관성사 박현숙 7.31 10,000	만보사 정덕순 7.29 5,000	벽룡사 원 당 7.18 10,000	실지사 박병성 7.25 30,000	화음사 류재환 7.18 10,000
관음사 신막심 7.30 10,000	만보사 이경순 7.31 10,000	벽룡사 요심해 7.18 10,000	운천사 김성숙 7.9 20,000	화음사 강승훈 7.30 10,000
기로원 상지화 7.21 10,000	만보사 지 성 7.31 10,000	벽룡사 진정희 7.21 50,000	운천사 김성숙 7.28 20,000	흥국사 여순애 7.9 10,000
기로원 불멸심 7.21 10,000	만보사 송호계 7.31 10,000	벽룡사 이재갑 7.21 50,000	운천사 반야화 7.28 20,000	흥국사 밀공정 7.9 10,000
기로원 법장화 7.21 10,000	무명씨 7.29 20,000	삼밀사 원 송 7.3 10,000	정각사 윤선자 7.1 10,000	임자자 7.3 10,000
기로원 대자행 7.21 10,000	밀인사 정정희 7.2 5,000	삼밀사 인법계 7.3 10,000	정각사 김문수 7.15 10,000	오일록 7.24 10,000
기로원 대 관 7.21 10,000	밀인사 이연수 7.28 10,000	선립사 심지장 7.18 10,000	정각사 구정희 7.17 20,000	임동수 7.23 20,000
기로원 총지화 7.21 10,000	밀인사 이재호 7.30 10,000	선립사 정복지 7.18 10,000	정각사 박수빈 7.21 10,000	대구경북교구회 7.31 100,000
기로원 수증원 7.21 10,000	밀인사 정정희 7.30 5,000	성화사 우남배라 7.29 50,000	정각사 정남선 7.25 30,000	자비신행회 7.4 1,300,000
기로원 자선화 7.21 10,000	밀인사 이회원 7.30 10,000	수인사 한애숙 7.28 30,000	정각사 김점남 7.30 30,000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단음사 박호열 7.2 10,000	밀행사 신정희 7.25 100,000	수인사 권오남 7.28 20,000	정각사 조현필 7.30 5,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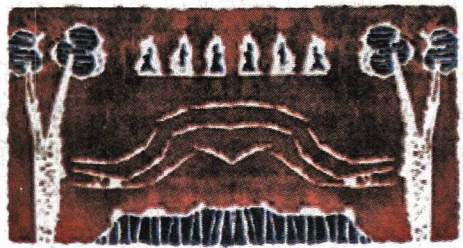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풍경소리

땅에서 넘어진 자



땅에서 넘어진 자
땅에서 일어난다.
- 고려 보조국사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현실을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발을 땅에 붙이지 않고 허공에 설 수 없듯이
인간의 행복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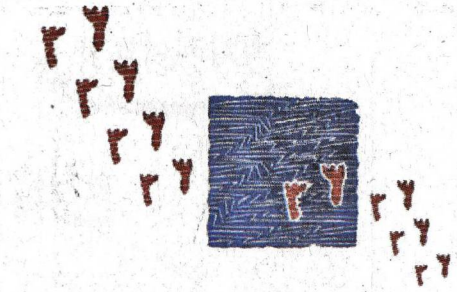
마치 대지에서 온갖 꽃이 피어나고
강물이 온갖 생명을 품듯이.

- 윤소암/ 시인, 평론가

이 밖에 더 무엇을

흐르는 개울물에 두 발을 씻고
다가선 산 빛에 두 눈을 맑힌다.
세속의 욕망은 꿈도 꾸지 않나니

- 법구경 중에서



이 밖에 더 무엇을 구하겠는가?

- 진각국사

즐거움을 원한다면



사람이 비록 악을 행했다라도
그것을 자주 되풀이 하지 말라.
그 가운데에는 기쁨이 없나니,
악이 자주 쌓이는 것은 괴로움이다.

사람이 만일 복을 짓거든
그것을 자주 되풀이하라.
그 가운데에는 기쁨이 있나니,
복이 자주 쌓이는 것은 즐거움이다.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밀고

글.그림/정수일

~전수경편 제30화~



정수일홈페이지-http://www.drawing라올라.kr

이달의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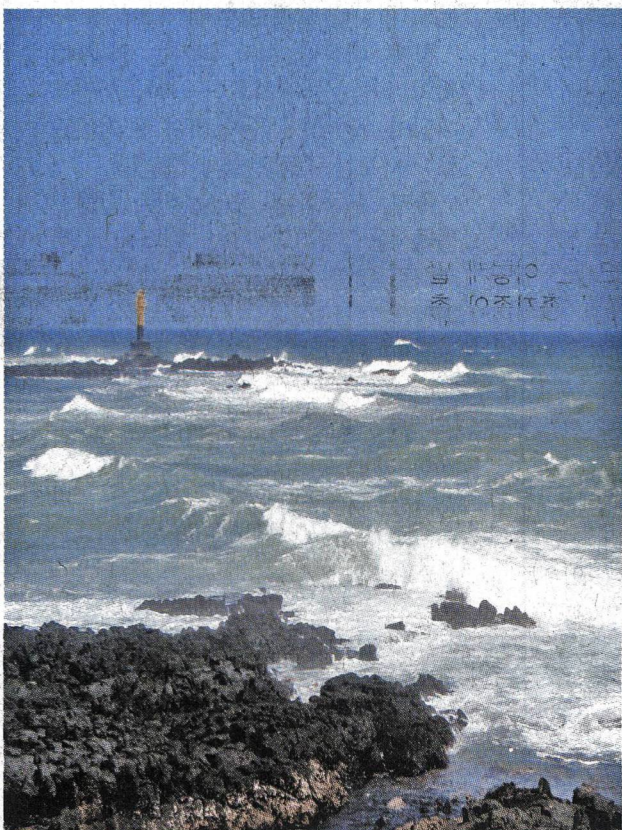
집착도 방일도 말라

“너무 애쓰면 조바심과 어울
리고 너무 게으르면 번뇌와 어
울리게 된다. 그 중간을 취하
도록 하라.”

-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아니루타에게

“공부도 그와 같다. 정진을
할 때 너무 조급히 하면 들뜨
게 되고 너무 느리면 게으르게
된다. 그러므로 알맞게 하여
집착하지도 말고 방일하지도
말라.”

- 부처님이 죽림정사에서
소오나 비구에게



제주바다 풍경

(사진 : 최해선)



고창 최고의 복분자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온 가족이 직접 재배부터 제조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 효능 · 효과 -

- *치매 증후 예방 및 치료
- *항산화 효과-산화질소 생성 억제로 노화예방
(비타민C보다 5.2배 이상 효과)
- *관절염 치료 예방과 오줌소태, 방광계통 치료
- *위장 질병 치료예방(위궤양, 십이지장)
- *장내 유해세균 억제
- *항암효과(미숙과에서 특효를 보임)
- *탈모방지, 발모촉진
-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및 정력강화

- 서울대,경희대,전북대,원광대 연구발표 -



* 가격: 복분자 액기스 \W40.000 복분자주 \W25.000 * 2병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주문전화: 063-564-4230 018-603-4230

세계속의 불교 ⑬

미국의 현대불교 ② (Modern Buddhism of America)

소승불교(Theravada)에서 4가지의 진실을 인간의 숙명적인 삶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친다.

첫번째 진실은 인간의 고통에 관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고통은 우리 인간이 주위에 존재하는 현상이나 환경과의 교차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삶을 직면함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것을 해야 하는 등의 실망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 자연의 섭리로서 인간에게 존재하는 고통이란 생, 노, 병, 사로 우리 인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돌볼 수 없게 되어 우리 인간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자아의식' '이기심' 등이 고통을 일으킨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생에 대한 고통을 숨기기 위해서 쾌락이나 환상을 추구하고 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미래에 대하여 환상으로써 고통을 일으키지만, 그릇된 자아의식의 확신은 항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두번째 진실은 근원적 고통이 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의 본능과 욕구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조정하거나 극복하기는 힘들다.

남방불교에서는 우리의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 됨으로 우리가 이 욕망을 분명히 밝혀 이 욕망에서 벗어나므로 고통을 없애야 한다고 가르친다.

개인의 감정이 욕망과 집념을 생기기 했으며, 이것이 우리의 생을 만들었고, 또 생명이 고통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

세번째 진실은 개인의 노력으로 인간의 고통을 멈출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불교에서 주장하는 개념이다. 생, 노, 병, 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가르친다.

네번째 진실은 이러한 인간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즉 개인이 어떤 범주에서 믿음의 삶으로서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지혜를 말한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기본적

으로 인간이 수행해야 할 것은 다음의 8가지 정도이다.

이러한 8가지의 훈련은 개인의 생활을 통하여 평상시에 계속되어야 하며, 이에 참가해서 3가지의 마음수양을 가르친다.

첫째는 지혜로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물의 현상을 바른 생각으로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의 삶을 밝혀줄 수 있는 도덕성을 말한다. 즉 인간의 행위는 정의로움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참선으로서 개인의 정신집중력과 통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집중하여 있을 때만이 우리의 지혜가 밝혀지며, 이곳에서 우리

바른 생각이란 남이나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파괴적인 이해와는 다르다. 바른말이란 아무런 해가 없는 말을 말한다. 위의 지혜, 도덕성, 훈련(자기수양), 바른이해, 이기심극복 다섯가지의 다음 세가지는 정신적인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여섯째는 불교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바른 결정이다. 이것은 비록 우리 인간이 삶에 있어서 여러가지 유혹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의지를 굳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번째는 항상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항상 깨달아 꼭 바른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하지만 실상이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하여 개인의 마음수양을 통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마음을 정신의 상태라고 규정짓는다. 그 마음의 상태를 건강한 상태와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2가지로 규정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건강한 마음의 상태란, 혼미, 찬상, 혐오, 거만, 거짓 환각, 이기심, 창피, 질투, 무지, 무식의 상태 등을 말한다. 또 건강한 상태의 마음이란 깨달음, 통찰력, 응통성, 겸손, 신뢰, 확신, 침착, 신중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禪(Zen)

미국에서 찾을 수 있는 선의 시작은 버마에서 시작된 위파사나이다. 미국에서 300,000만 신도를 가지고 있는 N.S.A(일원종 미국지부)는 많은 미국인, 또 아시아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로 신도로서 미국에서 큰 맥을 이루고 있다.

이 종파는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남부호랑교(창각회)로서 불려지며 전통적인 불교의 가르침을 고수하지 않음에 그의 특성으로 나무묘법연화경을 주경전으로 삼고 있다. 이 종파는 일본에서는(Sokagaka)소카가키로 불리어지며, 미국에서는 Nichiren(일원종) Shoshu of Amearu (NSA)로 불리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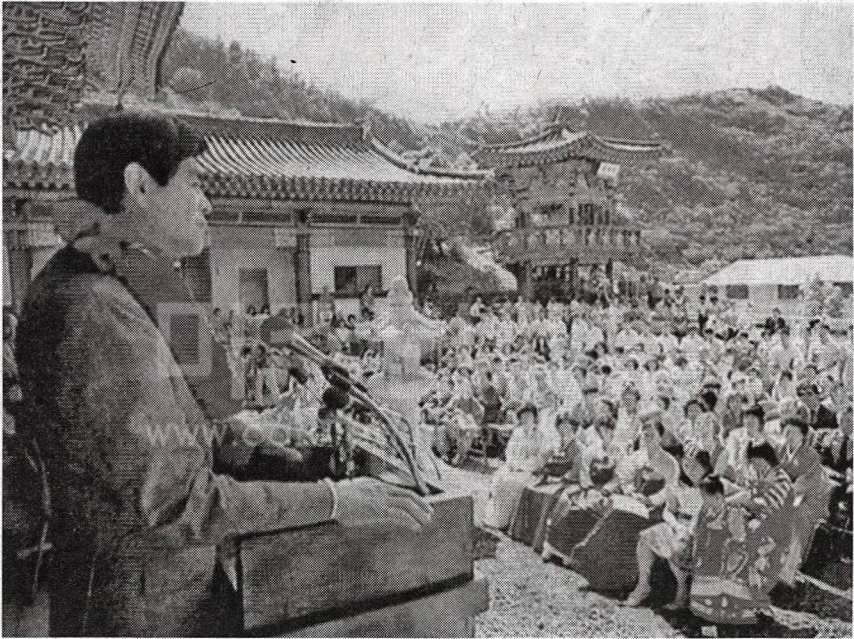
이 종파는 일본의 스님인 Nichiren(니히이렌)이 불교의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불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이기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종파의 해석은 Mandala(만다라)와 Mantra(진언)의 유효성에 중점을 두어 불교의 개인 수양을 통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아픔을 치료하고, 물질적인 이익을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이것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이익이란, 직업, 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여행과 좋은 관계 유지 등을 자기 수양을 통하여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교의 다른 해석을 통하여 NSA는 사회적, 가족성을 강조하여 신도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정(통리원)



▲하와이 대선사 낙성법회.

는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바른 이해로서 불교에서는 바른 이해를 불교도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이해는 어떤 개인의 신념이나 인식에서 결정되어져서는 안되며, 개인의 노력에서 출발하여 형성된 지식과 통찰력에서 결론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이기심을 이해하는데, 불교의 바른 이해란 이기심을 버림에서 출발하여 개인의 깊은 심성에서 생겨난 완전한 이해를 말한다.

칼마의 법칙 혹은 인과에서 우리는 바른 이해와 인간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기본원칙으로 삼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기 수양 중 겪어가는 우리의 마음상태에서 허상과 실상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또 우리는 수행중 "아집"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인식에는 허상(혼미)의 실상 두가지가 있다. 허상이란 개인의 교육이나 경험에서 인식되며,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성공의 순간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 그대로를 인식하게 됨으로 그 인식이나, 판단이 세상의 실존현상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총지동의보감

변비 알고 대처하자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원초적인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자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배설하는 즐거움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 배변기능은 섭취하는 음식물을 영양분으로 저장하여 우리 몸으로 흡수시키고 난 뒤 형성되는 찌꺼기를 주기적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보통 음식물을 섭취하고 난 뒤 소화기관을 거쳐서 대장까지 전달되어 변이 형성되는 시간이 24시간 정도이며 경우에 따라서 48~72시간 정도 걸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간혹 2~3일에 한 번씩 변을 보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변비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발되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아침을 건너 생기는 경우(대장의 연동운동저하) — 아침시간이 대장이 활발하게 운동하는 시기이므로 — 보통 직장인들에 해당함.

둘째, 서구화된 음식섭취로 인해서 동물성음식섭취와 지방, 단백질 섭취 과다로 인한 섬유질 부족 - 청소년에 해당.

셋째, 노인들의 경우 운동부족으로

인한 기초체력부족과 복근력 저하. 넷째, 여성들의 경우 다이어트로 굶거나 양을 줄여 몸박으로 노폐물을 밀어낸 만큼의 변이 형성되지 않음.

다섯째, 변비약의 남용으로 대장이 확장되거나 연동운동을 상실.

여섯째,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복부의 긴장상태가 지속될 경우 등이다.

간혹 유 소아들도 변비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3~4세 정도가 되어야 성인처럼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갖게 되므로 우유를 먹거나 이유식을 먹는 동안에 나타날 수 있고 편식을 하거나 배변훈련시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됨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엄마들의 세심한 주의와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교육이 필요하다.

치료는 위장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음식물의 소화흡수에서 분비배출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절하게 되며 여성의 경우 자궁도 하나의 분비기능을 하게 되므로 원활한 생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혈의 배설을 촉진하는 치료를 함께 병행하게 된다.

변비는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한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비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는

참초 - 지방과 단백질분해를 도와 비만한 경우 효과적이다. 생즙을 먹거나 가루로 내어 4-8g씩 공복에 복용한다.

여성의 경우 나팔꽃씨(견우자)와 복숭아씨(도인)를 각 40g과 20g씩 가루로 내어 차스폰으로 하루 2-3회 복용한다.

노인의 경우 호도씨 30g을 맷쌀 50g과 함께 죽을 쑤어 복용한다.

죽비소리

망상을 버리고 실상을 관망

일체 업장의 바다는 모두 망령된 생각으로 생기는 것이니, 참회하고자 하면 단정하게 앉아서 실상(實相)을 생각하라. 모든 죄는 이슬같이 지혜의 햇볕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지극한 마음으로 육정의 근본을 참회하라.

- 관보현법경觀音普賢行法經

여성美 조선화 원장



자경단(子經丹)

중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복합 자궁허혈케

생리약분석기



자동팔강진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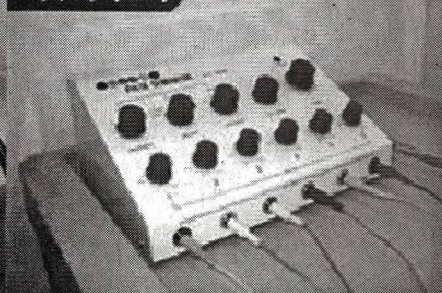
초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자극기



좌골욕기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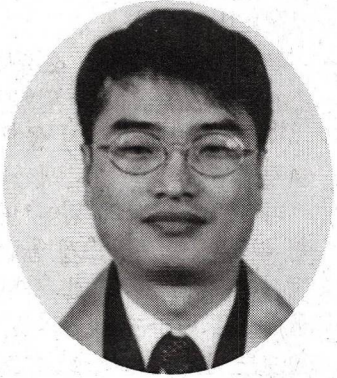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지상설법

우란분절 - 마음을 밝혀주기 위해 천도재, 불공



인 선

〈운천사 주교/사회부장〉

지나간 7월 15일은 종단의 명절로 우란분절 또는 해탈절이라고도 합니다. 5월 28일부터 7월 15일 회향일 까지 49일 동안 돌아가신 선망부모와 조상님들의 영식을 위하여 이 기간 동안 천도불공을 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천도불공을 하다 보니 힘들거나 마음에 회의가 들면 간혹 보살님들 중에는 언제까지 천도불공을 해야 하나? 죽은 사람을 지푸 부를 필요가 있느냐? 혹은 실제로 극락과 지옥이 있는 것인가? 하고 의심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시대와 장소는 달라도 사람의 의문은 똑같은가 봅니다. 인도에도 부처님 입멸직후 가섭존자와 극락과 지옥을 믿지 않는 왕자가 대론하고 있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경이 있습니다. 〈장아함경〉에 속하는 〈폐숙경〉인데 중요한 내용만 선별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가섭이 물었다. “어떤 연유로 내생이 없다고 말하는가?”
왕자가 대답했다. “저에게 병을 앓아 매우 고생하는 친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지금 그대는 나의 친족이고 또 10악업도 갖추고 있다. 만일 윤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대는 죽어 반드시 고통스런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분명히 지옥이 있다면 너는 마땅히 돌아와서 내게 말해 알려 달라. 그런 뒤에야 믿을 것이다.’ 가섭이여, 그는 벌써 죽었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친족이라서 당연히 저를 속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생은 있다

가섭이 비유를 들어 대답했다. “국법을 어겨 사형 집행관에게 끌려간 죄인이 부드러운 말로 간수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놓아주시오. 고향의 모든 친족들을 만나 작별의 인사를 마친 뒤에 반드시 돌아오겠소.’ 바라문이여, 어떠한가? 저 간수는 기꺼이 그를 놓아주겠는가?’ 왕자가 답변했다. “안 될 것입니다.” 가섭은 부연했다. “죄인이나 간수나 모두 같은 사람으로서 현세에 함께 살고 있는 데도 오히려 놓아주지 않는데, 더구나 그대의 친족은 10악업을 갖추고 있으니 몸이 죽어 수명이 끝난 다음 틀림없이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옥의 간수는 자비심도 없고 또 사람도 아니다.”

그가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지옥의 귀신에게 요구하기를 ‘너는 잠시만 나를 놓아다오. 내가 세간으로 돌아가 친족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한들 석방될 수 있겠는가? 바라문이 대답했다.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내생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라문에게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 ‘내생이 없다’라고 하는지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저에게 병을 앓아 위독한 친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지금 그대는 나와 친하고 또 10선업도 구족하고 있다. 만일 윤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대는 이제 목숨을 마치면 반드시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만일 분명히 하늘의 과보가 있거든 너는 마땅히 와서 내게 말해 알려 달라. 그런 뒤에야 나는 믿을 것이다.’ 가섭이여, 그는 벌써 죽었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친족이라서 당연히 저를 속일 리가 없는데 오지 않는 것을 보면 반드시 다른 세상이란 없는 것입니다.” 가섭은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똥구덩이에 떨어져 머리카락 빠졌다고 하자. 그 사람을 끌어내어 가루비누와 깨끗한 재로 여러 번 씻긴다. 다음에는 향탕(香湯)에 목욕시켜 여러 가지 고운 가루향을 그 몸에 뿌리고 거둬 씻긴다. 이렇게 세 번을 되풀이하고 향탕에 목욕시키고 가루향을 몸에 뿌리며 좋은 옷으로 그 몸을 꾸미고 온갖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자. 그 사람이 다시 더러운 똥구덩이로 들어가려고 하였는가? 모든 하늘도 또한 그렇다. 이 염부리(閻浮利)의 땅은 냄새나고 더러워 깨끗하지 못하다.

모든 천신은 여기서부터 거리가 백 유순(卍)이나 떨어진 위에서 멀리 사람들의 냄새를 맡지만 뒷간 냄새보다 더 심하게 여긴다. 그대의 친족은 10선(善)을 갖추고있으므로

틀림없이 하늘에 태어나 5욕을 스스로 즐기며 쾌락이 끝이 없을 텐데 왜 다시 기꺼이 이 염부리로 돌아오려고 하였는가?”

하반기 49일 불공, 조상천도 기원

죽어서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생이 없다고 주장하는 왕자의 주장에 가섭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공을 믿는 불자라면 반드시 극락과 지옥 즉 육도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돌아가신 부모조상들을 위하여 천도불공을 해야 할까요? 천도재 불공은 죽은 자로 하여금 좋은 인연 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빛을 비추어 주는 것으로 바로 영식의 마음을 바꾸는 법문인 것입니다.

영식이 살아생전에 탐욕과 어리석음 속에서 한평생을 살았다면 어찌 그 마음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 마음은 어두운 수박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밝혀주기 위해서 천도재를 지내고 불공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듯이 영식도 불공과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참회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임종 후 49일 동안 영식을 위하여 49재를 지내줍니다. 그러나 미처 49재를 지내주지 못한 영식도 있을 것이고 설사 49재를 지내주었다라도 살아생전 지은 죄와 업, 가족과 물질 그리고 생애에 대한 애착 집착으로 갈 곳을 가지 못하고 중음신으로 떠도는 영식은 누군가 자신을 위해 천도재를 올려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살아생전 지은 업 때문에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영식을 위해서 이승에 남아 있는 누군가가 불공이나 공덕을 쌓아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 달라고 인연 맺었던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처음에는 꿈에 나타났다가 반응이 없으면 집안에 우환도 들끓게 만들고, 교통사고도 유발시키고, 부부간에 갈등을 만들거나 헤어지게도 하고, 자식들의 진로도 막아버리고, 사업도 어렵게 만들고, 가세도 점점 기울게 만드는 등 온갖 장애들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수 없이 많은 나쁜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거의 대부분 영식들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자신도 예전에 성화사에 있을 당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가족이나 일가친척들에게 붙어 있는 영식들 때문에 가정에 재난이 끊이지 않고 고통을 받고 있는 보살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뒤로도 운천사에서 교화를 하면서 천도재를 지낼 때 영식의 죽을 당시의 고통과 가족에 대한 걱정과 회한을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였기에 영식의 존재에 대하여 확실한 것입니다.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여 영식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단의 하반기 49일 불공기간은 돌아가신 조상부모의 왕생극락을 기원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은 삶의 무상함을 자각하고 또한 지난날의 죄업을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의 좋은 기회가 된다 하였습니다. 조상부모 영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것이 곧 내 가정의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욕심이 적으면 근심도 적다

“여러 비구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없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을 적게 하기 위해서라도 힘써 닦아야 할 텐데, 하물며 그것이 온갖 공덕을 낳게 함에 있어서라.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굽혀 아첨하지 않고 모든 관념에 이끌리지 않는다.

또 욕심을 없애려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고, 하는 일에 여유가 있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들게 되는 이것을 가리켜 욕심이 적음(小慾)이라 한다.

만약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녀석함을 아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안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듯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하지만 사실은 부유하다. 만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만족을 아는 사

람에게서 불쌍하게 여겨진다. 이것을 가리켜 지족(知足)이라 한다.”

◇ 무리를 좋아하면 무리의 괴로움을 받는다

“여러 비구들, 만약 적정 무위의 안락을 얻고자 한다면 안락의 시끄러움을 떠나 혼자서 한가한 곳에 있거라. 마음속의 온갖 분별 망상과 바깥의 여러 대상 경계를 버리고 한적한 곳에 혼자 있으면서 괴로움의 근본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제석천도 공경한다.

무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리로부터 괴로움을 받는다. 그것은 약한 나무에 많은 새떼가 앉으면 그 가지가 부러질 염려가 있는 것과 같다. 또 세상 일에 얽매이고 집착하여 여러 가지 괴로움에 빠지는 것은 늙은 코끼리가 전후를 빠져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가리켜 멀리 떠남(遠離)이라 한다.”

◇ 낙숫물이 돌을 뚫는다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이를테면, 낙수물이 떨어져 돌을 뚫는 것과 같다. 수행

인의 마음이 게을러 정진을 쉬게 되면, 그것은 마치 나무를 비비어 불씨를 얻으려 할 때 나무가 뜨거워지기도 전에 그만두는 것과 같다. 그는 아무리 불씨를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정진(精進)이라 한다.

선지식을 찾으려면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는 일밖에 없다. 잊지 않고 생각하면 모든 번뇌의 도둑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생각을 모아 마음에 두라. 만약 바른 생각을 잃어버리면 모든 공덕을 잃어버릴 것이며, 생각하는 힘이 굳세면 비록 오욕의 도둑 속에 들어가더라도 해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완전하게 무장하고 싸움터에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것을 가리켜 잊지 않고 생각함이라 한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마음은 곧 선정(禪定)에 있을 것이다. 마음이 선정에 있으면 세상의 생멸하는 존재 양상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모든 선정을 부지런히 닦아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물을 아끼는 집에서 독이나 못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수행자도 지혜의 물을 위해 선정을 잘 닦고 그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이것을 가리켜 정(定)이라 한다.”

◇ 무명속의 밝은 등불

“지혜가 있으면 탐착이 없어질 것이니, 항상 자세히 살피어 그것을 잃지

했다면, 그는 세상의 무엇이든지 욕망으로 밝게 볼 수 있다. 이것을 가리켜 지혜라 한다.

여러 가지 꾀변으로 논쟁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비록 집을 나왔다 할지라도 아직 해탈하지 못한 비구는 무익한 논쟁을 하지 말고 어지러운 마음을 쉬어야 한다. 열반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논쟁의 번거로움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리켜 논쟁치 않음이라 한다.”

◇ 참는 덕

“여러 비구들,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 사치를 마다마디 찢는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 성내지 말고 또한 입을 정하게 지켜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성내는 마음을 그대로 놓아두면 자기의 도를 스스로 방해하고 공덕과 이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참는 일이 덕이 되는 것은 계를 지키거나 고행하는 일로도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참을 줄 아는 사람이라야 용기 있는 대장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받는 꾸밈음을 감로수 마시듯 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에 들어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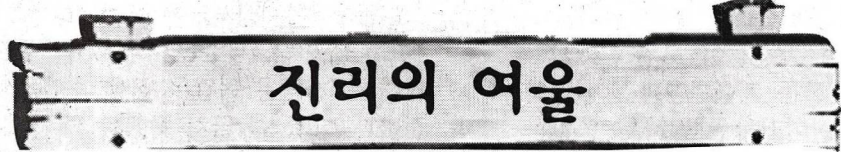
왜냐하면, 성냄의 해독은 착한 법을

부수고 좋은 명예를 잃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도 남이 좋게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내는 마음은 사나운 불꽃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 항상 막고 지켜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공덕을 빼앗는 도둑으로 성냄보다 더한 것은 없다. 세상 사람은 욕심만 있고 자기를 다스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 성냄도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출가 수행자가 성내는 것은 당시 않은 일이다. 그것은 마치 맑게 갠 날에 뇌성 벼락이 치는 격이다.”

◇ 빗발과 향기를 다치지 않게

“음식을 받았을 때는 마치 약을 먹듯 하고, 좋고 나쁜 것을 가려 생각을 팔지 말며, 건강을 유지하여 주리고 목마름을 달래는 데에 맞도록 하여라. 마치 꿀벌이 꽃을 거쳐 올 때에는 꿀 만들기에 적당한 꽃가루만을 취하고 빗발이나 향기는 다치지 않는 것처럼, 비구도 남의 공양을 받을 때에는 주림을 달래기에 알맞도록만 하고, 많은 것을 구해 그 착한 마음을 헛지 말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소의 힘이 얼마만한가를 헤아려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 그 힘을 다하게 하지 않는다.”



진리의 여울

않도록 하여라, 이것은 우리 법 가운데서 능히 해탈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행자도 아니요 세속 사람도 아니므로 무엇이든 이름할 것이 없는 것이다.

참 지혜는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는 튼튼한 배이고, 무명 속의 밝은 등불이며, 모든 병든 자의 좋은 약이고, 번뇌의 나무를 찍는 날이 선 도끼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은 잘 듣고 생각하고, 지혜로써 더욱 자신을 길러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혜의 빛을 가

않도록 하여라, 이것은 우리 법 가운데서 능히 해탈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행자도 아니요 세속 사람도 아니므로 무엇이든 이름할 것이 없는 것이다.

참 지혜는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는 튼튼한 배이고, 무명 속의 밝은 등불이며, 모든 병든 자의 좋은 약이고, 번뇌의 나무를 찍는 날이 선 도끼이다.

총지중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바라밀 공부방은 자라나는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학습, 교육하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차상위 아동

프로그램

학습활동 : 국어, 수학, 영어, 한문

신체활동 : 요가, 태권도

문화활동 : 영화보기, 비디오상영

특별활동 : 컴퓨터, 미술수업

급식제공 : 일일1회식식제공, 간식제공

홈페이지 : happylog.naver.com/baramil.do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컴퓨터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2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을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바라밀 아동들의 문화프로그램 신장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충지문예

담배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담배를 피워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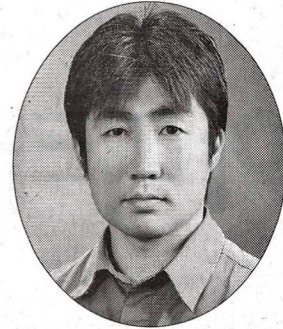
이 밤 창문을 때림에
산산히 흩어지는 것들이 있으니
이런 날에는 더욱 푸르스름한 연기들.....,

담배 연기와 함께 날려 보낼
그리움이 나에게는 더 없음에
나는 담배를 끊는다.

용중에
그리움은 없으나
기다림은 그 자리를 채우고

봄 밤
연기 대신
벗꽃잎만 흩날리누나.

-담배연기는 나의 가슴 속 깊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 가슴 속 한 칸에 있는 그리움까지 끌고 나왔다.-



박 흥 웅
동해중 교사

우리들의 이야기

내 고향으로 가는 길

보살님,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 밖을
내다보니 나뭇잎 끝에 아침이슬이 보석을
올려놓은 것 같이 반짝반짝, 아주 환상적
이었어요.

●나는 벅찬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옛날
내가 살았던 안암골. '안암골' 하면 가슴이
설레고 떨린다. 벅찬 가슴으로 내 고향으로
가는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에서 내려 그
옛날 기억을 더듬어.....

고려대 정문앞에서 살며시 안을 들여다
보니 옛날 기타치고 노래 부르던 잔디밭은
그대로 주위도 별로 변한 것 이 없었다. 만
두에 콩나물국 맛있게 먹던 기억 [1967년].

안암동 로타리, 여기는 많이 변하여서 그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듬 맞춰 본다. 안암다
방은 그대로 이름도 바뀌지 않고, 고대생과
미팅하였던 추억, 축제때 만나서 조잘조잘,
홍차 생각이 난다. 한참을 헤매다 개운사
로 올라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광장히 넓다고 생각하였던 길인데 좁아
보이고 집들이 있었던 곳은 상가로 변하였
다.

뒷길로 가니 옛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
다. 눈이 오면 미끄럼 타던 언덕, 변전소,
마굿간으로 넘어가던 언덕 마굿간으로 넘어
가던 언덕은 그옛날 소풍날 오빠와 언니 기
다렸다가 김밥, 과자, 밀크커피...보따리
받아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들....

내 살던 동네는 몇 집은 그대로 남아 있
어 이집은 순포네 집, 이 집은 이 규향
집.....

어릴때 기억이 새록새록 고향집을 뒤로하
고 개운사로 향하니 개운사 주위는 너무나
도 많이 변해 있었다. 넓었던 입구까지 상
가들로 꽉 차 있었다. 초등학교때 소풍가서
보물찾기 하였던 장소도 찾을 수가 없었다.
옛날엔 산속깊이 있었다고 기억하였는데 어
머니와 같이 빨래하였던 장소도 찾을 수 없
었다.

개운사 대웅전에 앉아 불공하니 마음이
가라 앉고 불공도 잘되고 좋았어요 이 느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또 한군데 가볼 곳이
있어 둘러보았는데 [승가원] 내가 봉사하려
고 하였는데 가보니 내가 봉사 할곳이 아님
을 알았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기로 하였
어요. 아직도 설레임이 남아 있습니다.

-박정희 함장

(이 글은 총지사 박정희 보살님이 도반
심일화 보살님께 보낸 메일 글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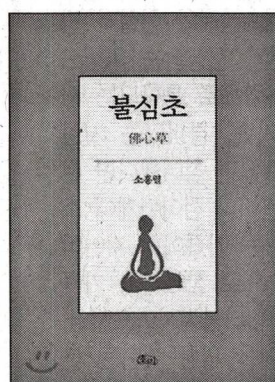
원영 평오 지음/ 정원규 옮김/ 불광출판사



염불, 모든 것
을 이루는 힘 -원
영 대사의 염불수
행을 권하는 법문
으로 염불에 관한
교학과 방법 염원
담을 실은 염불수
행총론서이다.
염불수행법은
크게 실상(實相),
관상(觀想), 관상
(觀像), 지명(持名) 네 가지로 나누는데 원영
대사는 지명염불의 올바른 수행법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세 가지 자량을 설명하면서
지명염불이 뛰어난 수행법임을 교학적 근거
를 들어서 증명하고 있다.

불심초

소흥렬 지음/ 호미



예로 살아왔다. 그런 저자가 어떠한 계기를

기반으로 불교 승려들과 인연을 맺고 붓다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만년에 이른 지금, 붓다
의 길은 저자의 생애를 하나의 작품으로 완
성해 가는 수행의 길에서 이상과 목표가 되
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는 이 책의 1부에
서는 저자가 붓다의 길을 찾아나선 순례의
길과 수행의 길의 소설의 형식으로 기록해
나간다. 2부는 짧은 철학적 에세이들로서 철
학과 종교, 명상과 수행 등에 관한 사유로
붓다의 길을 모색한다. 3부는 기독교 신관을
불교 등과 비교해 비판한 글이다. 4부에서는
소설의 형식으로 21세기 예수의 역사적 의미
를 새롭게 짚어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붓다를 기억하는 사람들

김광하 지음/ 운주사



부처님과 주위
사람들 사이에 일
어난 특별한 만남
이나 사건을 통해
부처님의 모습을
탐구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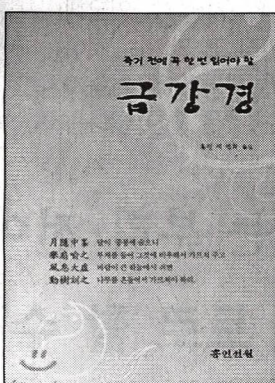
한 사람을 알려
면 먼저 그 사람
이 살아온 이력을
보듯, 부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우선 역사 속에서 살아간 부처님과 그 주
위 사람들의 실제 삶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하기 때문이다.
이 책 전반부에는 가필라국의 왕자 고타마
싯타르타가 출가한 이유와 깨달음을 얻는 과
정을 그 시대의 현실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부처님을 만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이 왜
부처님을 기억하게 되었는지 살폈으며, 경전

속에 나오는 부처님 주변의 에피소드를 소개
했다.

이 책 후반부에는 당대 여러 종교가 추구
한 권위와 신비, 욕망과 쾌락에 대해 부처님
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 보았다. 또한 부
처님과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몇 가
지 갈등을 살피고,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이
풍요와 빈곤, 발전과 환경파괴가 공존하는
이 시대의 혼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다.

금강경

법희 지음/ 흥인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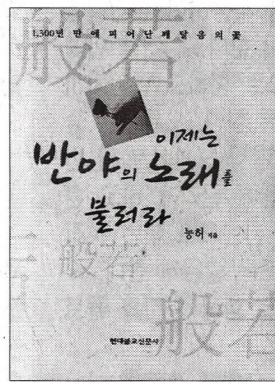
금강반야바라밀
경·금강반야경이
라고도 한다. 인도
사위국을 배경으
로 제자 수보리를
위하여 설한 경전
으로, 한곳에 집착
하여 마음을 내지
말고 항상 머무르
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양으
로 부처를 보지 말
고 진리로서 존경하
며, 모든 모습은 모
양이 없으며 이러
게 본다면 곧 진리
인 여래를 보게 된
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 원효대사의 금강경
소를 비롯하여 경흥, 대현, 함허 스님 등이
많은 소를 지었으며, 특히 조선초기 학승인
함허당 득통 스님은 금강강오가해에 설의를
더하여 오가해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금강경오가해는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조
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 이 책에선 육조, 야
부, 함허스님이 설(說)한 내용만을 발췌해 한
글로 실었다.

이제는 밤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거사/ 현대불교신문



석산탁발화(德
山托鉢話)와 파자
소안(波子燒庵)의
두 동안을 다 통
과했으니 내가 인
가를 안 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
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났든 당
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
서 1300년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라
네" -정일대선사 재가불자로서 불교사에 빛나
는 금자탑을 세운 능허거사의 진솔한 말이
담겨있다.

세계불교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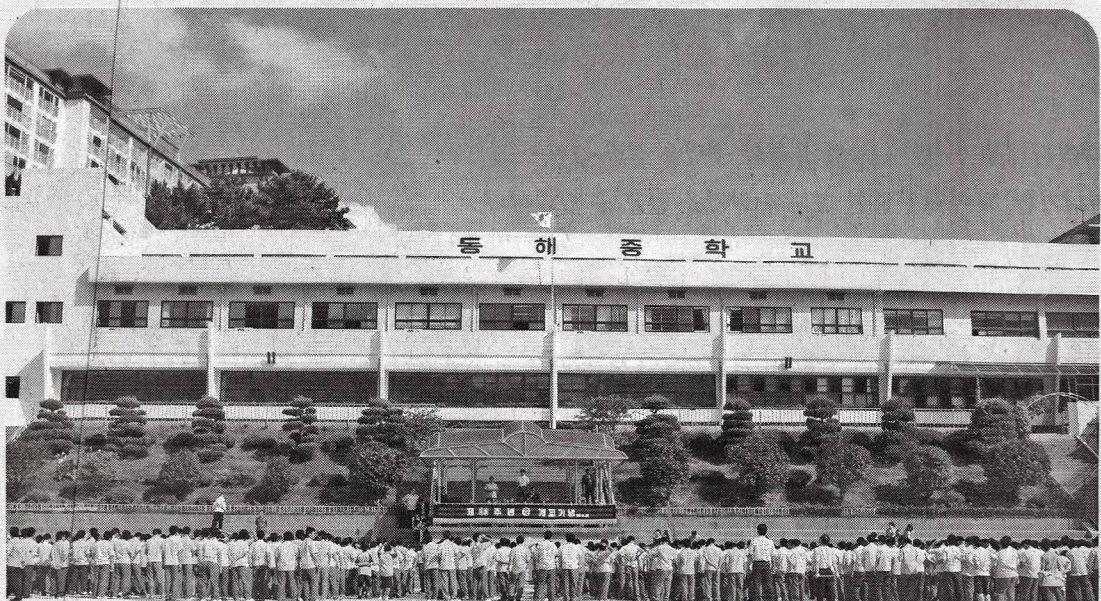
행산 스님 / 큰나



가리데프 역시 자기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어머니지만, 한 편으로는 무서운
짓을 저지르고 마는 나쁜 버릇이 있는 것이
다." [부처님과 가리데프] 중에서. 불교 동화
책. 이 책은 한국, 인도, 중국, 등의 불교 동
화들을 수록하였다.

이 책의 동화들은 부처님의 말씀은 물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자비', '비움', '평화',
등의 큰 가르침들을 담았다. 또한 자신의 마
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 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실천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 교훈 : 창조 · 협동 · 경애
- 교목 : 보리수
- 교화 : 장미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 기획특집/불교 상장례② >

“나무 아미타불, 생각만 해도 왕생극락”



유 세 철

(연화회 대표/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외래교수)

지난 호에는 불교 임종의례의 주체와 대상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종의례의 모델, 임종의례의 단계별 준비와 내용 등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임종의례의 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의료기구 등을 제거한 후 조심스럽게 눈을 감기고 배설물을 치운다 ▲몸이 굳기 전에 “아미타불”을 염불하면서 팔, 다리를 가지런히 한다 ▲턱이 쳐지지 않도록 턱에 손을 대고 봉대로 감아준다 ▲가족들이 큰소리로 울거나 절대로 시신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변을 정리하고 시신을 깨끗한 흙이불로 덮은 후 염불을 계속 한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한글 통일법요집에는 그 내용과 절차를 삼귀의→반야심경→수계→참회진언→연비(생략가능)→삼귀의계→오계→설법→임종염불→아미타불 본심미묘진언→극락왕생 발원문→사홍서원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화회 원왕생 의식집에는 임종의례의 내용과 순서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귀의권고→삼귀의→십념(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아미타불 정념→왕생극락 발원문→사홍서원이며, 둘째는 환자방문 후 위로→삼귀의례→반야심경 봉독→수계(참회진언-연비-삼귀의계-오계-무상계)→설법→임종염불(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사십 팔대왕-아미타불 본심미묘진언)→왕생발원문(극락세계 발원문)→사홍서원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티베트사자의 서는 “사자(死者)가(사자의 서를) 듣는 것만으로도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조계종 정토사는 연화회의 한 종류로 임종염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종하는 이를 돕기 위하여 바치는 임종염불은 아직 의식을 가진 병자들에게는 회복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를 극복할 수 있으며, 마음의 안정을 가지므로 죽음을

행복하게 맞이하여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임종시에 “나무아미타불”을 10만번 부르거나 명호를 듣기 만해도 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연화회 원왕생 의식집에는 임종의례의 방법과 진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당나라 도선(道宣)스님이 저술한 『四分律行事』, 『看病』 및 『葬送』항목에 의하면..... 해가지는 방향으로 무상당(無常堂)을 건립하여 환자를 모셔야 한다. 여기서는 평소 사용하던 물건들을 멀리하여 애착을 끊게 하여야 한다..... 건물 안에는 개금을 한 불상을 서쪽으로 향하도록 안치하고 오색기가 바닥에 깔리도록 한다. 오른손은 들고 왼손은 중간에 내려 있으면서 오색실로 된 번(幡)을 잡게 한다. 이번을 땅에 끌리게 하고 환자는 불상 뒤에 놓게 한 후 왼손으로 이반을 잡게 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발원케 한다. 주위에는 향과 꽃으로 장식하고 항상 환자를 돌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임종 염불시에는 내영불(來迎佛)이나 내영도(來迎圖)를 모셔두거나 혹은 모시고 다니면서 임종환자에게 염불한다. 불상이나 내영도는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환자는 서쪽을 향하여 눕게 한다. 그리고 불상의 손에 오색실을 한쪽 끝을 걸쳐두고 다른 한 쪽 끝은 환자의 손에 잡게 한다. 그런 후에 향을 피우고 염불을 시작한다.

불교 임종의례 모델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기 전의 삶이 “잠재적인 죽음의 여정(potential death trajectory)”이었다면 임종시기는 “실질적인 죽음의 여정(actual death trajectory)”기로 실존적 삶(俗)에서 분리되어 존재론적 자아(俗-聖)로 이전되고 다시 본래적 자아(聖)로 회귀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임종기는 생사간(生死間; Living-Dying Interval)의 시기이다. 즉 현실적 삶, 사회에서 분리, 격리되는 단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생사의례를 연구하는 한 교수는 통과의례단계로 상례과정을 분석하면서 임종준비에서 매장·화장까지를 분리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소극적 분리단계-분리거부단계-적극적 분리단계로 나누고 있다. 즉 임종준비에서 임종까지를 소극적 분리단계, 임종직후부터 망자의 소생의례가 포함되는 수시 전까지를 분리거부단계로, 그리고 수시에서 매장·화장까지를 적극적 분리단계로 구분한다.

이 구분에 따르면 임종의례는 전체 상례과정의 소극적 분리단계에서 적극적 분리단계의 입관까지로 전체 상례과정에서는 분리단계에 해당한다. 한편 조계종 정각스님 은 상례과정을 임종의례-시다림-다비의례-제의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임종의례 그 자체로도 하나의 완결된 의례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완결된 의례구조

란 분리-전이-통합이라는 통과의례적 구조를 갖거나 또는 기승전결 내지 도입부-클라이막스-결말부라는 내부적 완결성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임종의례의 구조와 내용>

상례과정의 분리단계

분리단계(도입부) - 임종인지부터 임종직전 죽음의 수용

전이단계(클라이막스) - 임종직전이나 직후 법제로의 인도

통합단계(결말부) -임종직후부터 입관 전까지 슬픔의 위무

임종의례의 단계별 준비와 내용

(가)분리단계

임종의례의 분리단계는 임종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임종 직전까지로 임종자를 이승으로부터 분리하는 시기로 길게는 수개월에서 수년, 짧게는 없거나 아니면 수분 또는 수 시간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 시기에 임종자에게는 삶에 대한 집착을 끊고 죽음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리고 가족에게는 슬픔을 충분히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임종자가 삶에 대한 애착을 끊게 하기 위해서는 의례 참여자가 “곧 낳을 것이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임종자에게 “남은 사람들은 잘 지낼 수 있으나 걱정 말고 편안한 곳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삶에 대한 애착을 끊게 하기 위해 임종자에게 친숙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리단계에서의 임종의례는 스님이나 자격있는 법사가 참여함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그 횟수나 상황을 고려해 임종자 본인이나 가족, 봉사자가 진행할 수 있다.

임종의례의 내용은 임종자가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고 수용하여 내생에 대한 희망, 그리고 확

지 염불한다. 임종자가 불자가 아니라면 수계와 연비를 한다. 의례 후에는 아미타불 진언이나 명상음악을 오디오로 들려준다. 임종의례의 형식과 무관하게 임종자나 가족은 수시로 염불한다.

(나)전이단계

전이단계는 임종직전부터 임종직후 아뢰야식이 머물러 있는 시간까지이다. 의식이 몸에서 분리되어 지승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생전 예수(豫修)가 부족한 임종자라면 단말마(斷末魔)의 고통을 겪는 시기이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임종자가 의식이 있는 최후의 순간과 임종순간은 임종자와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종의례 중이라면 이 순간엔 의례의 진행을 중단하고 가족이 임종을 지키도록 한다. 또 임종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더라도 임종자의 의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뚜렷하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각한다고 한다. 따라서 가족들의 울음이 지속되면 가족들을 임종자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임종 직후라면 가족이 자연스럽게 울 수 있도록 3~5분간을 배려한다. 이 순간 스님은 보다 큰 목소리로 임종자의 귀 가까이 대고 십념(十念)한다. 울음이 단시간 내에 그치지 않으면 역시 가족을 다른 공간으로 격리한 후 의례를 진행한다.

집례는 가급적 스님이나 법사가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경험 있는 가족이나 지인 불자가 한다. 머리는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쪽으로 눕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임종자가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으면 된다. 이하 내용은 분리단계와 같다. 의례가 끝나면 집례자는 108번의 목탁을 쳐 임종을 고한다. 스님이 이 단계에만 참여했을 경우 수계와 연비를 한다. 스님은 고인을 법계로 인도하기 위해 가급적 임종자의 귀 가까이에서 염불한다. 의식이 끝나면(임종 후 30분~1시간 후) 가족은 아미타불을 연호하며 비소로 고인의 옷을 갈아입히고 고인의 팔다리를 주물러 골게 편다.

(다)통합단계

임종 후(제8식이 소멸한 후) 임종종음이 활동하는 시기이다. 집일 경우 빈소를 차린 후이며 병원일 경우 장제식당이나 안치실로 운구한 후이다. 즉 생물학적, 의학적으로는 삶과 완전히 분리된 이후이다. 상례 전 과정 상으로는 본격적 분리단계로 입관 전까지이며, 상례의 현실적 진행상은 상례라는 의례가 본격 진행되는 과정으로, 불교식 상례에서는 시다림으로 통합되는 시기이다. 집례는 스님이나 가족, 경험있는 지인 불자가 한다. 스님이 이 단계에만 참여했다면 전이단계의 의례를 진행하며 분리나 전이단계에 스님이 참여한 후라면 이 단계는 가족이나 지인이 해도 무방하다. 불교식 제단으로 장엄하고 가족이나 지인이 진행할 경우 아미타불본심미묘진언, 왕생발원문을 염불한다. 고인을 위한 제단을 불교식으로 장엄한다.



아미타 내영도

임종의례는 분리·전이·통합단계로 분류

가족슬픔 토로 할 수 있도록 기회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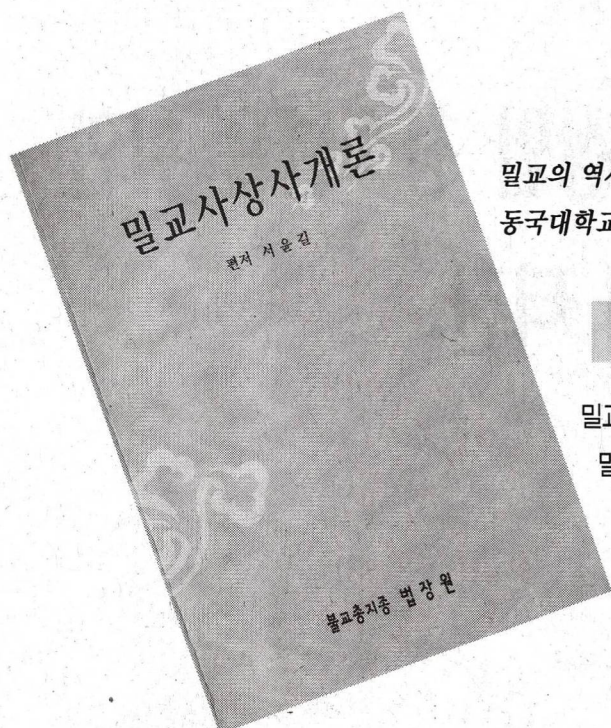
스님·임종자 가족 등 끊임없이 염불해야

주장도 있으나 오히려 낮은 환경은 불안을 증폭시키며 이 불안은 곧 생애에 대한 집착에서 오히려 집처럼 친숙한 환경에서 임종을 맞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병원이나 시설이라면 족자, 화분, 꽃, 가족 사진, 다라니 등으로 친숙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다. 또 도선스님이 말한 바와 같이 임종자가 살아생전에 성취한 것들을 스스로 이야기하게 하거나 또는 가족이 상기시켜 임종자의 삶이 성공적이며 의미있는 삶이라 느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가족들이 비통함, 성냄, 슬픔을 표할 때는 임종자 곁을 떠나서 해야 한다. 따라서 임종의례시 가족들에게 슬픔표현을 권하고 그 기회를 주되 이때는 임종자와 격리된 공간에서

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의례는 청정한 분위기에서 번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소가 집이라면 간단한 단을 만들어 장엄하고 제물을 진설해 성소(聖所)로 만든다. 집례자(스님, 법사, 가족, 임종자)는 임종자의 머리맡에 내영도(來迎圖)를 걸고, 촛불과 향을 밝힌다. 경전과 생화를 준비하고 독경과 명상음악을 비치한다. 염주를 목이나 팔, 손에 건다. 아미타상과 오색 번을 준비하고 임종자가 한 손으로 이 오색 번의 끝을 잡게 한 후 삼귀의, 반야심경, 아미타불본심미묘진언, 사홍서원을 염불한다. 스님이 참석했다면 앞서 제시한 삼귀의에서 사홍서원까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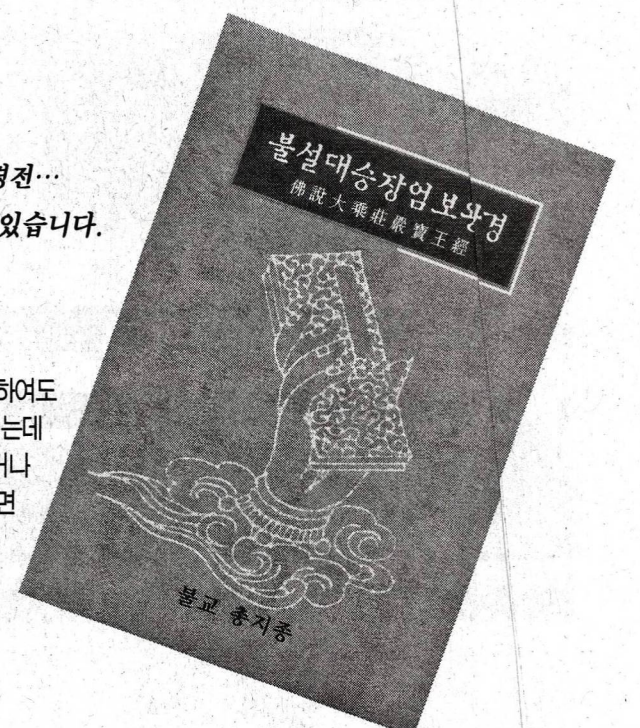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유자대명다라니《유마니반해품》의 유래와 공덕을 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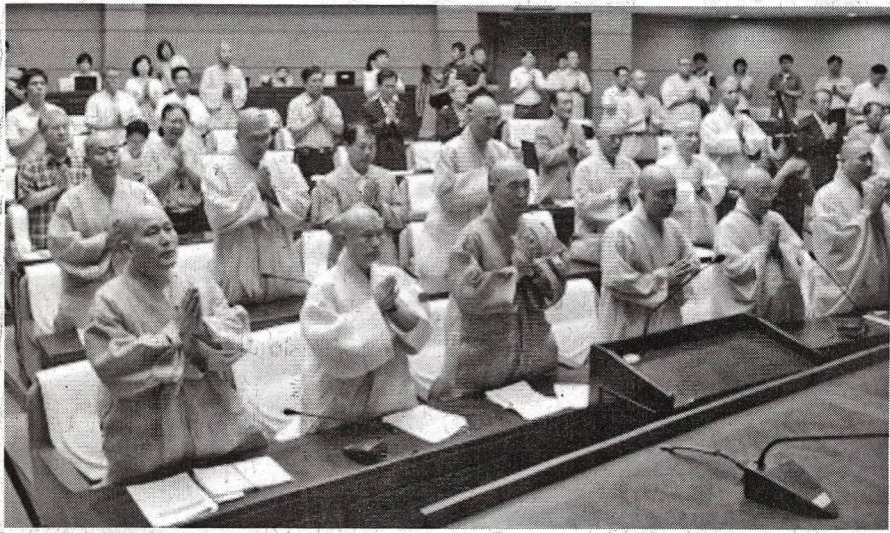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불교 총지중 법장원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지관 스님 차량 과잉점문은 불교탄압”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하고, ‘종교차별금지법’ 제정하라”



◇8월 4일 헌법파괴, 종교차별 종식 대책을 위한 범불교 비상대표자회의가 개최됐다.

종단협, 8월 1일 성명서 발표

27개 불교종단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사무총장 홍파, 이하 종단협)가 8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종교편향과 불교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법현 스님(태고종 교류협력실장)은 “7월 29일 대낮에, 다른 곳도 아닌 조계사 경내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경찰로부터 불법 검문검색을 당한 것은 불교와 관련한 소통을 희망하는 정부의 처사가 아닌 명백한 정권과 공권력에 의한 불교

탄압”이라 주장했다.

이어 “불법 검문검색을 자행한 경찰의 행위는 2천만 불자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주는 철저하게 의도되고 계획된 악의적 행동으로서, 한국불교 최고 대표를 능멸하고 한국불교의 위상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유린한 만행”이라 규탄했다.

종단협은 “지관 스님 과잉점문 사건은 공직사회와 학교 등 우리사회 전반에 조직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교편향과 불교탄압의 한 가지”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완전하게 마련될 때까지 파사현정의 기치를 굳건히

세우고 용맹정진 하겠다”고 선언했다.

종단협은 ▲경찰공무원에 의해 불교탄압이 자행되도록 지시하고, 감독한 경찰청 총괄책임자인 어청수 청장 즉각 파면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즉각 추진 ▲대한민국 헌법정신 수호와 실현위반 이명박 대통령의 특단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8월 1일 오전 조계사 앞에서는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 봉태홍 등 10여명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조계종을 비난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7개 회원종단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기관, 그리고 국회에 보내는 요구 사항

- 경찰공무원에 의해 불교탄압이 자행되도록 지시하고, 감독한 경찰청 총괄책임자인 어청수 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 자유와 종교로 인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종교차별도 재발되지 않도록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숭고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수호되고 이 정신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의 특단의 노력을 촉구한다.
- 위 사항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27개 종단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며 이를 끝까지 성취시켜 나갈 것이다.

낙산사 옛모습대로 복원 가능해져

국립문화재연구원, <낙산사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문화기록만 전해졌던 양양 낙산사의 옛모습이 관련 유물출토로 확실해졌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7월 31일, 낙산사 발굴조사를 마치고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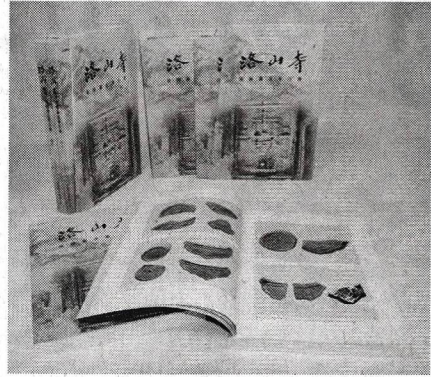
낙산사 발굴조사는 낙산사 사역의 변화과정을 밝히고 건물지의 정확한 규모와 위치 등을 파악해 낙산사 복원 고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원통보전(중심 법당)과 주변지에 대해 진행됐다.

발굴조사 결과, 중심 건물지(현 원통보전)는 고려시대부터 2005년 4월 산불로 소실되기 전까지 다섯 시기에 걸쳐 중창됐으며 조선시대 세조 때 최대 규모였음이 밝혀졌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낙산사는 당시 왕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으며 번성했다. 또 중심 건물지를 비롯한 주변 지역 8기의 건물지는 김홍도가 관동팔경 여행 중 그린 사생도 중 하나인 ‘낙산사도’의 건물지 배치 형태와 유사해 18세기 낙산사 가람 배치 형태가 파악됐다.

유물은 통일신라, 고려,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량의 기와 및 도기, 자기 등이 출토됐다. 명문 유물로는 ‘성화3년(成化三年) [세조13년(1467)] 명 암막새편과 고려시대의 ‘낙산사(洛山寺)’ 명 기와, 조선시대의 ‘낙(洛)’자 명 백자 등이 확인됐다. 또 연화문 암·수막새, 귀목문 암·수막새, 봉황문 수막새·용문 암막새, 연화문 수막새·‘황제만세(皇帝萬歲)’ 명 암막새, ‘범(梵)’자 명 수막새·가릉빈가문 암막새 등 모두 6세트의 막새기와가 출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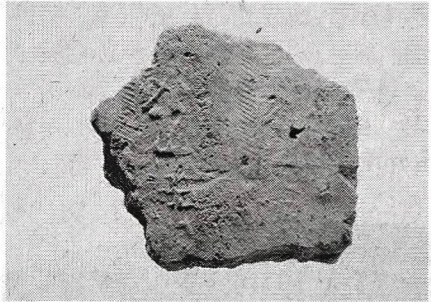
국립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문헌기록을 통해서만 전해지던 낙산사가 이번 발굴을 통해 통일신라, 고려,



◇낙산사 발굴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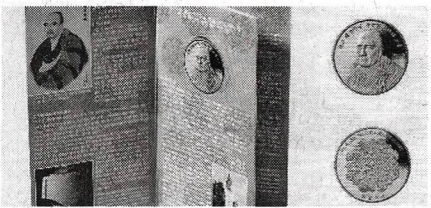
◇김홍도가 그린 낙산사도



◇낙산사명 기와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실과 중창을 거듭하며 현재까지 법맥을 유지한 천년 고찰임을 재확인됐다”며, <낙산사 발굴조사보고서>가 낙산사 사역 복원에 충분히 활용되기를 기대했다.

메달로 만나는 원효와 만해 스님 조계공사, 고승 기념 메달 한정판매



불교 대중화에 주력한 신라 고승인 원효 대사와 독립운동33인으로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만해 스님 메달이 제작됐다.

조계공사(사업이사 정해운)는 ‘한국인물시리즈 메달’ 제8호와 제10호에 원효 스님과 만해 스님을 각각 선정했다고 7월 28일 발표했다.

메달 크기는 직경 40mm에 중량 33g 정도다. 슬립 책자형 케이스와 별도로 6페이지 지면에 인물과 관련된 유적 사진, 업적 등을 수록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2만5000원으로 1만장 한정 판매 한다. www.koreamint.com (02)710-5223

제22차 세계철학자대회 개막 “동서 아우르는 첫 세계대회”

세계철학자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철학대회(World Congress of Philosophy)가 서울대에서 ‘오늘의 철학을 다시 생각하다 (Rethinking Philosophy Today)’를 주제로 7월 30일 개막했다.

8월 5일까지 열리는 대회는 104개국 2600여 철학자들이 54개 분과에서 478개 주제토론을 통해 문명전환기 철학의 새 방향을 모색한다.

서울대회는 유교·불교·도교 등 동양철학 비중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중심행사인 전체 강연에는 ▲도덕철학, 사회철학, 정치철학 ▲형이상학과 미학 ▲인식론, 과학철학, 기술철학 ▲철학사와 비교철학을 다룬다. 5개 심포지엄은 ▲갈등과 관용 ▲세계화와 코스모폴리타니즘 ▲생명윤리, 환경윤리 그리고 미래세대 ▲전통, 근대 그리고 탈근대:동양과 서양의 관점 ▲한국 철학에 대해 열린다.

교계학자로는 고영섭 교수(동국대), 원혜영 박사(연세대), 류재동 교수 등이 발표한다.

우희종 교수(서울대)는 8월 1일과 3일 각각 ‘생물권 네트워크에서 생명의 개체고유성’과 ‘복잡계 이론과 종교적 경험에서의 완전한 깨달음 구조’를 발표한다.

‘한풀이 춤’으로 유명한 이애주 교

수(서울대)는 4일 ‘춤과 마음’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교수는 춤은 신체 활동을 통해 마음을 투영하는 하나의 철학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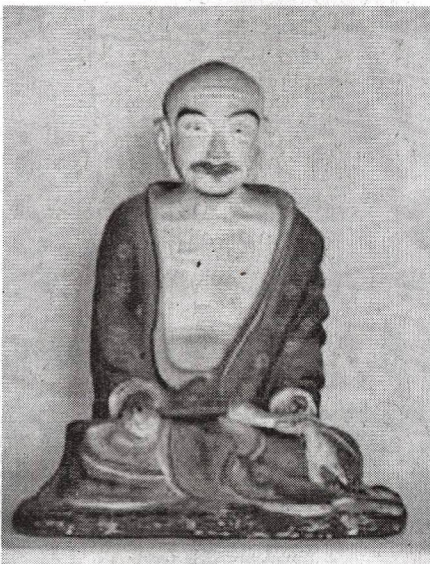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은 김기현 교수(서울대)는 “유럽대륙철학에 비해 영미철학이 다소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영미철학이나 동양철학 및 제3세계 철학을 비중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서울대회는 동·서를 아우르는 첫 세계철학대회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일반인은 사무국에 등록 후 대회에 참석할 수 있고, 등록비는 20만원이다. (02)2082-2300 www.wcp2008.or.kr

★세계철학대회는 19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개최됐다. 1차·2차 세계대전 때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는 3~4년마다 열리다가, 1948년 국제철학연맹 창설 후로는 5년마다 개최한다. 파리·옥스퍼드·볼로냐·하이델베르크·비엔나 등 학문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학술행사를 유치했다.

유럽철학계의 거장 피터 램프 회장(국제철학연맹)과 독일 현대철학을 대표하는 비토리오 회슬레를 비롯해 사이먼 블랙번(영국), 앨런 기바드(미국) 이마미치 도모노부(일본) 등 저명 철학자들이 서울 대회에 참석한다.

最古 나한상 동국대서 전시 동국대 박물관서 8월 14일까지



◇동국대 박물관에 전시 중인 흉국사 나한 중 6존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나한상이 처음 공개됐다. 동국대 박물관(관장 정우

택)은 ‘남양주 흉국사 십육 나한상 특별공개전’을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박물관 제2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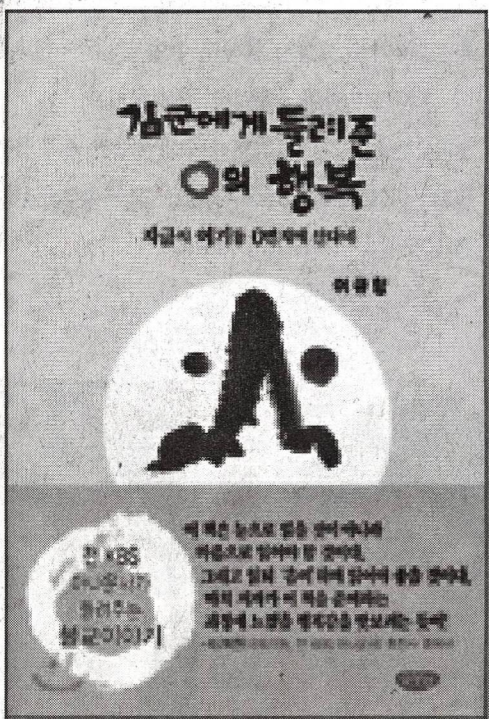
흉국사 십육 나한상은 45~47cm 크기로 목조 채색됐으며, 16 존자 모두 상태가 양호하다.

동국대 박물관 관계자는 “동국대 박물관이 2007년 흉국사 불교미술품 조사 과정에서 흉국사 나한상이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송광사 나한상, 귀신사 나한상 등에 비해 훨씬 사실적이고 조형이 뛰어나다. 흉국사 나한상의 1650년과 1892년 중수기록으로 볼 때 최소 1600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흉국사 나한상 이전에는 1624년 제작된 순천 송광사 십육나한상(보물 1549호)이 가장 오래된 나한상으로 알려졌다. 관람시간은 월~토요일 10~16시까지. (02)2260-3462

신간

『김군에게 들려준 0의 행복』



전 KBS 아나운서가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 이규향 지음/글누리/값9,000원

이 책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읽되 ‘음미’하며 읽어야 좋을 것이다. 마치 저자가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 느꼈을 행복감을 맛보려는 듯이!

- 이계진 (국회의원, 전 KBS 아나운서) 추천서 중에서

0의 행복은 행복의 황금률이다!
붓다의 깨달음을 ‘음식의 맛과 0’의 키워드로 풀다!

깊은 사려와 직관에서 비롯한 영혼의 울림
-석성우 스님 (불교TV회장)

석가모니부처님의 법의 향기와 0의 행복 가득 담긴 이 책을 보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고광수 (중국 북경방송 CRI교수)

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화를 원하죠. 이 책은 그 해답을 당신께 제시합니다.

-손범수 (방송인, 전 KBS 아나운서)
나의 마음자리는 어디일까를 가늠하며 한번더 꼼꼼히 읽어볼까 합니다.
-정은아 (방송인, 전 KBS 아나운서)

방생법회를 무사히 마치고

“방생 법회 통해 또 하나의 깨달음이...”

• 방생 : 다른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새·짐승 따위의 산 것들을 사서, 산에나 못에 놓아 살려 주는 일. 예로부터 사찰에서는 불교도들이 해마다 일정한 때에 방생을 하고자 방생계(放生契)라는 것을 조직하여 방생회(放生會)를 열어 오고 있다.

방생은 살생(殺生)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살생을 금하는 것은 소극적인 선행(善行)이고 방생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善)을 행하는 일로 권장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생의 근거는 《금광명경(金光明經)》에 의하는데, 이 일을 행하는 시기는 보통 음력 3월 3일이나 8월 보름이었고 근래에는 일정하지 않다.

어렵썬, 내 기억 속 어린 시절에

일년에 한 두 번, 어머니가 새벽같이 집을 나서던 때가 있었다. 바로 우리 종단의 큰 법회중 하나인 방생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커가면서 위에 설명된 것처럼 '방생'의 의미를, 그리고 우리 총지중에서는 상·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후, 반드시 방생법회를 치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방생을 하는

으나, 그저 나오는 거리가 먼, 나이가 좀 지긋하신 보살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 치부할 뿐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20여년이 넘도록 어머니가 매년 방생법회에 참석을 하였고, 나 또한 총지중의 법을 배우고 나뭇 불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고 복을 지어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그러던 중, 5년 여

라며, 어머니와 주변 분들의 반강제, 협박(?)에 의해 참석하게 되었다.

“어? 출발 시간이 왜 이렇게 늦어?” 내 기억 속에 항상 어머니는 방생법회 참석을 위해 새벽같이 집을 나서곤 하셨는데, 이번 출발 시간은 너무나 여유가 있어 나타난 나의 첫 반응이었다. 이유인즉슨, 서울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충남 당진 왜목 마을이었기 때문이었다.

비가 온다는 일기 예보를 들었고, 출발하는 그 시간에도 뿌옇기만 한 하늘을 보며 모두들 조금은 걱정을 안고 총지사 앞 대로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출발하였다.

중간에 잠시 쉬어갔던 휴게소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경인지구 보살님들과 정사, 전수님들께서는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에 바빴고, 나 또한 오랜만에 뵈게 되는 보살님들께 인사를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드디어 도착한 왜목 마을 해변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부터 가늘게 내리기 시작한 비 때문이었는지, 그리 넓지 않은 해변은 한적했고, 먼저 도착한 교무님들께서 방생법회를 위한 불단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상태였다.

모두들 서둘러 자리를 잡았고, 해변가에서 시작된 방생 법회, 그 해변을 울려 퍼지던 엄중한 진언.

무엇인지 모르 것이 나의 가슴에 경건하게 와 닿았고, 이 경건함은 법당이 아닌, 집이 아닌, 평소와는 다른 공개된 장소에서의 불공으로 인한 내 마음의 어색함을 어느새 밀어내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모두들 한마음 한 뜻으로 엄

숙하게 법회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쏟아지는 비. 앉아 계시던 보살님들은 누가 먼저랄 할 것도 없이, 미리 준비하고 계시던 우산을 펼쳤다. 이로 인해, 잠시 어수선했지만, 이내 시작할 때의 엄숙함과 진지함을 되찾고 무사히 마치게 된 법회. 그리고, 후에 있었던 방생.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 주는 일.

행동이 빠르지 않아, 놓아줄 물고기를 얻지 못 하고, 그저 다른 보살님들께서 물고기를 방생하실 때, 옆에서 서원을 하고, 차로 돌아가려 할 때, 물고기 4마리를 얻어 아직 방생하지 못한 이들을 찾는 보살님을 만나 내 손으로 직접 방생을 할 수 있었다.

내 손을 떠난 직후, 물에서 방향을 찾지 못 하고 헤매던 물고기가 곧 물살에 적응을 하고, 그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넓은 바닷가를 향하는 물고기를 보며, 그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바다 위에서 배회하는 갈매기에게 잡히지 말고, 새롭게 얻은 생명, 누릴 수 있을 때까지를 바라는 것 밖에는, 정작 중요한 서원은 하지 못 했다는...

경건한 시간은 무사히 지나고, 이제부터는 즐거운 시간!!

끊임없이 무섭게 내리는 비로 인해, 급하게 장소변경! 원래는 법회를 했던 해변가에서 2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비로 인해, 다른 실내 장소로 이동. 그 곳에서 각자 사원에서 준비해온 점심을 먹고, 시작된 각 사원의 장기자랑 시간. 각 사원의 보살님들이 나오셔서 보여주시는 춤과 노래. 정말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경건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끼는 방생법회를 무사히 치른 후, 신정회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모든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 불공을 함에 있어서는 마(魔)가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이번 방생에서 비가 온 것이 그렇게 느껴지고, 방생법회를 원만하



게 진행하지 못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비가 내린 덕분에, 실내로 자리를 옮겨 장기자랑을 했고, 그럼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비를 맞으면서도 무사히 방생법회를 마쳤다는 뿌듯함과 2008년 하반기 방생법회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추억 또한 만든 것이라고 말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또한 이러한 원리에 있지 않을까 한다. 항상 어떠한 일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

하지만, 그렇게 공존하는 나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 그것으로 인해 다른 것을 더 깨달을 수 있고, 좋은 것에 더 감사하며 살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처음에는 참가가 망설여졌던 방생법회였지만,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여러 스승님들, 보살님들과 함께 하여, 즐겁고 뜻 깊은 하룻동안의 외출이었고, 이번 방생 법회를 통해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 이정화(총지사)



것이 큰 복을 짓는 일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굳이 내가 꼭 참석을 하고, 실천해야 할 공덕(功德)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 했었다. 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방생법회가 물론 복 짓는, 좋은 일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

의 타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니, 이미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참가가 결정된 2008년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방생법회. 후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참가하고 싶어도 못 갈 것이



행복하고 순수한 미소를 전해주는 뽐 스튜디오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

행복한 마음까지 담아내는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 감춰진 추억의 책장을 넘기는 순수하고 환한 미소

뽐 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어드립니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동관2층, 뽐스튜디오

찾아오는 길 : 지하철 3호선 주엽역 8번 출구 5분거리

전화 : (031) 915-3856 정진욱 실장 (송우섭 보살 삼녀)

홈페이지 : bomstudi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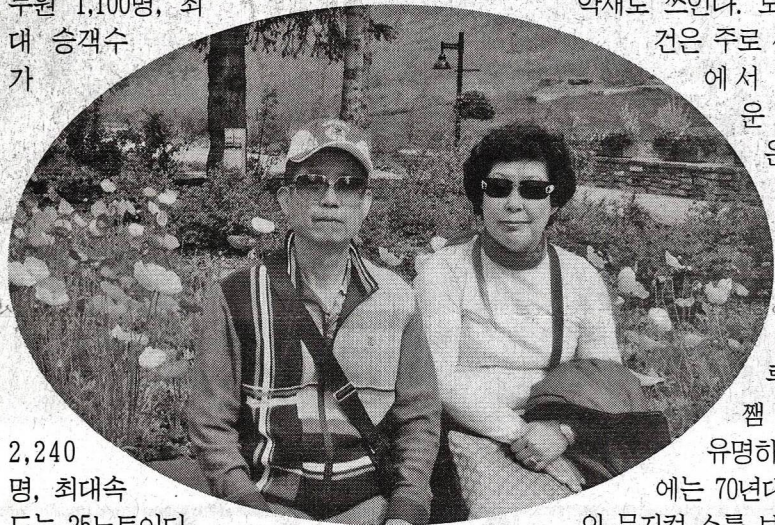


■ 특별기고 / 알래스카, 북미 여행

알래스카 - 경이로운 대자연

“북미 - 나라 전체가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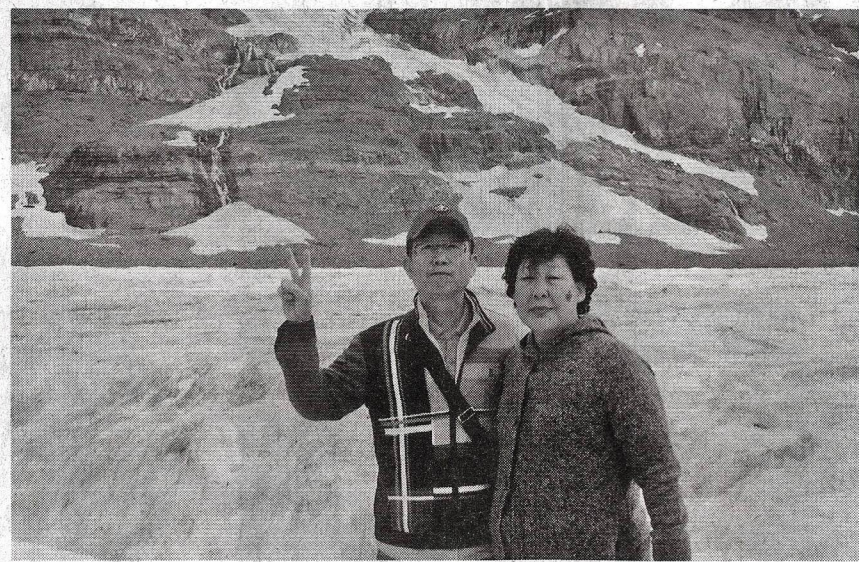
2008년 6월 21일 인천국제 공항에서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하여 9시간 정도 걸려서 시애틀의 타코마 국제 공항에 도착하였다. 워싱턴 인구가 600만명, 시애틀은 수도권까지 400만 명 정도라 한다. 2~4월은 가을날씨 같이 좋으며 공기, 물, 아채, 쌀이 좋다고 한다. 시애틀에는 마이크로 소프트, 스타벅스(본사), 인터넷 강자인 아마존닷컴이 있고 시애틀 백화점 Nordstrom이 112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중순자가 운영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회사 선전을 안 하고 종업원 대우를 잘해 준다. 화장이나 종업원의 의료보험료가 같고 종업원의 동성연애자, 내연녀도 건강보험이 된다 한다. 시애틀에 알래스카나 멕시코로 가는 크루즈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진, 현대택배가 활약을 많이 하고 있다. 미국사람이 은퇴하고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뽑혔다 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집이 20억원에 나왔는데 경매가격은 50억원 까지 올라 갔다 하니 매스컴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다. 시애틀 항구에서 Norwegian Cruise Line-Star 탐승수속을 하였는데 배의 총 톤수가 91,000 톤 배길이 294미터 넓이 32미터, 승무원 1,100명, 최대 승객수 2,240명, 최대속도는 25노트이다.



2,240명, 최대속도는 25노트이다.

다음날은 선장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우리 일행의 여성분들이 한복을 입고 촬영하는 모습을 본 외국여성들이 “원더풀”을 하면서 매우 호기심 있게 보았다. 저녁에는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맥주를 마시면서 밤늦게까지 춤을 추었다. 셋째날은 Ketchikan항에 도착하여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장승(토폴폴스)이 있는 것

을 보았는데 여기에도 우리나라의 단군신화에 나오듯이 곰이 등장하는 설화였다. 밤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쇼를 보았다. 다음날은 Juneau항 도착(알래스카의 주도). 주는 1880년대의 골드러시때 생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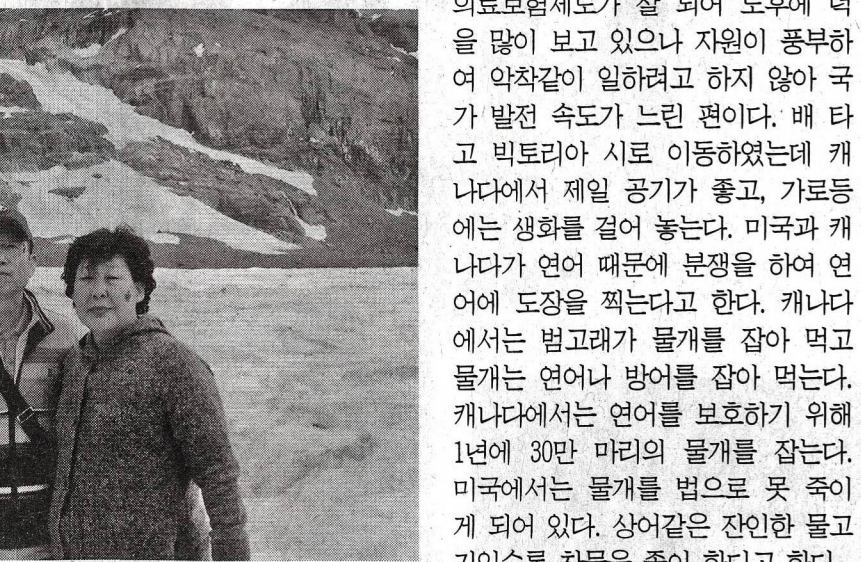


며, 알래스카에서 가장 장엄하고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이다. 1944년까지 한 때 전세계에서 제일 많은 금을 생산하였으나 지금은 폐광되었고 현재는 행정도시이다. 광산 부근 가시

가 많은 식물들은 기관지 계통에 좋은 약재로 쓰인다. 모든 물은 주로 시애틀에서 배로 운반해 온다. 그 부근에는 연어와 블루베리로 유명하다. 밤에는 70년대 배경의 뮤직컬 쇼를 보았다.

다음날의 기항지는 Skagway. White pass라는 기차로 눈 덮인 산을 구경하였는데 사방의 경치가 너무 좋았으며 6~8만 기차여행이 가능하다. 저녁에는 나이트 클럽파티인데 상의를 하얀색으로 입고 오라고 하였다. 다음날은 캐나다 프린스 루퍼트 기항지인데 관광 및 쇼핑을 하고 밤에는 써커스, 쇼코렛부페 파티 등이 있었다. 그 다음날은 시애틀을

국수숙 설명을 듣고 24명 일행이 모여 가이드가 준비해 간 가요 반주를 배 위에서 틀어 놓고 노래자랑을 하였다. 나는 “Love me tender”를 하여 박수를 받았다. 다음날은 크루즈를 마치고 시애틀로 왔다.



시애틀은 인디언 추장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인구 5명당 한 명이 배를 갖고 있으며 8억짜리 배 한 척 정박 비용이 연간 2,000만원이 나 된다고 한다. 시애틀은 한국의 포항 비슷하고 L.A는 부산 비슷하다고 한다.

보잉에서 만드는 비행기를 워싱턴에서 제작한다. 스노클림 폭포 견학 다음날은 캐나다 입국 수속을 마친 후 트윈 페리터미널로 이동, 조지아 해협을 관광하며 밴쿠버 아일랜드로 이동 스왈츠 베이, 빅토리아 시내 관광, 부차드 가든 관광을 하였는데 부인 제니포스터부차드가 가든으로 만들었다. 예쁜 꽃들도 많고 아주



잘 만들었다고 느껴졌다.

캐나다는 인구가 3,500만명, 북극까지 합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보유하고 나무는 전부 팔면 캐나다 사람이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니, 참 부러웠다.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노후에 걱정을 많이 보고 있으나 자원이 풍부하여 악착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아 국가 발전 속도가 느린 편이다. 배 타고 빅토리아 시로 이동하였는데 캐나다에서 제일 공기가 좋고, 가로등에는 생화를 걸어 놓는다. 미국과 캐나다가 연어 때문에 분쟁을 하여 연어에 도장을 찍는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범고래가 물개를 잡아 먹고 물개는 연어나 방어를 잡아 먹는다. 캐나다에서는 연어를 보호하기 위해 1년에 30만 마리의 물개를 잡는다. 미국에서는 물개를 법으로 못 죽이게 되어 있다. 상어같은 잔인한 물고기일수록 찬물을 좋아 한다고 한다.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30분 정도 가면 하키장이 나오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하키를 무척 좋아 한다. 여름에는 대자연 속에서 래프팅을 한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공원으로 보면 된다.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스위스의 알프스 산 부근이고 밴쿠버(장군이름)가 두 번째인데 인구는 90만인, 홍콩의 많은 부자가 밴쿠버로 이사를 가서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 여러 나라가 합쳐서 모자이크 문화를 이루고 있다. 한국 유학생이 많고 한인이 7만인 정도 된다.

(다음 호에 계속)

세상사는 이야기

얼마 전의 큰 충격에서 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와 가깝게 지내면서 전시관에서 도슨트 봉사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의 남편이 갑자기 작고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보를 듣는 순간 마구 떨리면서 온 몸의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동안 남편이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그는 늘 행복한 모습이었다.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허둥대고 있는데 당사자인 친구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배우자를 잃은 것 보다 더 큰 스트레스는 없다고 하지 않을까?

정신을 차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다 같이 문상을 갔다. 친구와 마주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말

지금 오는 이 비가 우리 친구의 가슴을 마구 휘저어 놓을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아마 자녀들이 엄마를 잘 위로해 주고 있었지. 평소에도 자녀들과 각별하게 지내고 여행도 같이 다니며 늘 다정한 자매 같은 모습을 보여주던 딸들이었으니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살아가는 힘을 가지게 되었지. 곧 위대한 엄마의 힘을 보여줄 날이 앞당겨 지겠지.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도 겁이 난다. 혹시 너무 좌절하고 있거나 앓을까. 너무 힘들고 지쳐 쓰러지지 않았을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의 아들과 딸들이 옆에 있는데.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친구의 일을 겪으며 다시 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 보게 된다. 우리들이 멀게만 느껴지고 내 일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되던, 아니 바쁘게 살다 보니 생각 하지도 않았던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死)과 애별리고(愛別離苦)

을 한들 지금의 그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우리들을 본 그는 울음을 터트렸다. 말없이 그냥 안아 주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친구 남편이 작고하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친구 못지않게 우리들의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 후 종종 위로의 문자도 넣어주며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참담한 심정일 텐데도 항상 고맙다는 답을 보내고 있다. 흐트러짐 없는 그의 바른 의지가 감동적이다. 그는 지금도 남편을 위해 집에서 남편의 49재를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부처님의 힘이 아닐까 한다. 어려운 때 중심을 잡고 극복 할 수 있게 해 주는 부처님을 만난 나는 돌아가신 시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지금 창밖에는 비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라도 할 듯 세차게 내리고 있다. 천둥이 치고 번개도 번쩍거린다. 캄캄캄하게 놀라게 하는 공포의 수준이다. 남편을 보낸 그는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아니 불공 열심히 하려 할 것 내고 있었지. 비 오는 것을 좋아하는 나도 오늘은 비가 원망스러워진다.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너무 세월만 쫓다가 여기까지 온 내 인생, 남은 것이 무엇일까? 체로 걸려 봐도 남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나이 든 후에는 봉사하는 삶을 살리라 마음 다잡고 현재 이곳 저곳에서 봉사하고 있지만 그것도 생각해 보면 타인 보다 내게 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 누구는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내 인생에 후회 없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난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 내가 인생의 목표를 너무 작게 잡은 것은 아닐까? 나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차분한 마음으로 지나온 인생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남은 인생의 설계를 알차게 해야겠다.

우리 친구는 아직도 혼이 내간 위암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을 때도 있다고 한다. 빨리 예전대로 돌아 온 그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총지 불교대학

‘현대인을 위한 불교 입문’ 강좌

- 강사: 화령(중앙교육원장/ ‘불교교양으로 읽다’ 저자)
- 강의료: 3만원(3개월) (※교재 무료 제공)
- 기간: 9~11월
-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통리원 2층 반야실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테잎 보급



불교 총지종은 종조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출시된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은 편안한 배경음악에 전문성우의 음성을 더빙해 누구나 듣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종조법설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원정 종조님의 사상과 유훈을 이땅에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불사 일 것입니다.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구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불교 총지종 통리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교총지종통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전화 02)552-1080~3 / 팩스 02)552-1082

제18회 여름학생 수련회

모험과 도전! 하나되는 충지인!



바다 래프팅



장기지랑 "so hot"



원승 통리원장 대회사



염주 만들기



종립 동해중 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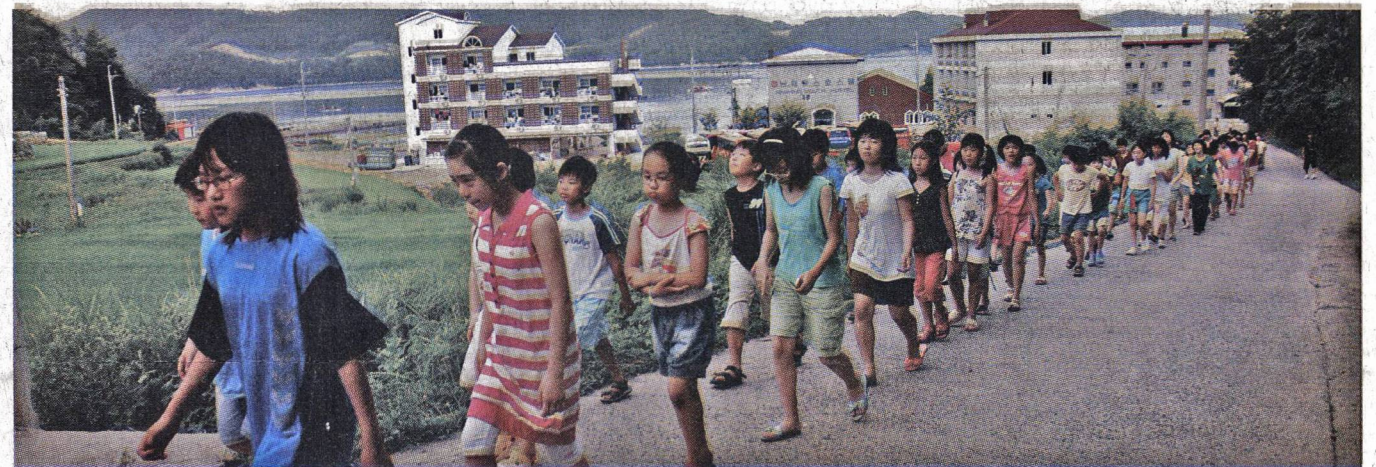
나비체험관 견학



'몸마니네메' 사경



모듬놀이



숲길 경행



정각불교문화센터



불교충지종 정각사

불교교양강좌



불교입문

전통승인 교학에 기본, 불교의 실천적 이해,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 초월성, 불교의 사회적 역할, 불교의 역사, 불교의 미래

강 사 : 보정 / 전 교학 연구소
현 충지종 7개교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9시
수강료 : 무료 / 3개월
교재비 별도 (한 5천원)

어린이 강좌



책 읽는 미술 (독서미술)

강 사 : 김경숙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4시 20분
수강료 : 9만 원 / 3개월
교재비 별도 (한 5천원)
대 상 : 초등 1, 2, 3학년

교육 강좌



생활영어 (영어회화)

강 사 : 박순영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수강료 : 9만 원 / 3개월
교재비 별도 (한 5천원)

건강 강좌



요가

강 사 : 장선혜
시 간 : 주 3회 월, 수, 금 오후 4시 50분 ~ 6시
수강료 : 6만 원 /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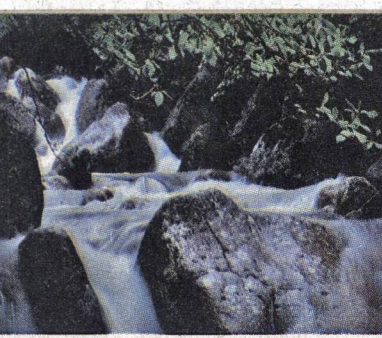
태권권

강 사 : 장선혜
시 간 : 주 3회 월, 수, 금 오후 4시 50분 ~ 6시
수강료 : 6만 원 / 3개월



합기권

강 사 : 장선혜
시 간 : 주 3회 월, 수, 금 오후 4시 50분 ~ 6시
수강료 : 6만 원 / 3개월



취미 강좌



서예 강좌 (한글서예, 한문서예, 서경서예)

강 사 : 서경 / 서예 / 서예 / 서예
시 간 : 주 2회 월,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수강료 : 9만 원 / 3개월
교재비 별도 (한 5천원)



오기나 강좌

강 사 : 최수지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수강료 : 9만 원 / 3개월
교재비 별도 (한 5천원)



꽃꽂이 강좌

강 사 : 이희영 / 허정 / 허정 / 허정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토요일 10시 30분 ~ 12시
수강료 : 9만 원 / 3개월
교재비 별도



시창 강좌

강 사 : 시창 / 시창 / 시창 / 시창
시 간 : 주 2회 월, 수, 금 오후 5시 30분 ~ 8시 30분
수강료 : 10만 원 / 3개월

수강안내

본교문화센터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누구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서 작성하여 주시는 수강신청서를 회원 가입을 대체하며, 회원 가입은 없습니다.
강좌 개수는 3월, 6월, 9월, 12월로 수강신청은 수시로 진행됩니다.
수강 신청은 전화로 접수, 전액 납부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강신청서 양식과 수강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전화 신청을 하실 경우 먼저 전화 주시며, 전화로 신청하신 수강생은 현장에 오셔서 수강료 납부 후 수강 가능합니다.

* 수강 신청은 전화로 접수 가능하며, 수강료는 현장에 오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각 강좌는 기본적인 신규회원 가입 및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하며 강좌 개정에 필요한 최소 인원 미달할 경우 수강생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장기 강좌의 수강료는 3개월로 정하며, 3개월 이상 수강생에게는 수강료를 할인합니다.
- 수강료는 3개월로 정하며, 3개월 이상 수강생에게는 수강료를 할인합니다.
- 수강 신청 후 환불이나 강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청하신 강좌의 취소는 수강 후 2주 이내 접수 후 2주 이내 취소 가능합니다.
- 접수시 만원인 경우 수강료는 10만 원으로 정하며, 10만 원 이상은 환불해 드립니다.
- 변경을 원하시는 강좌가 마감된 경우 해당 강좌로 변경해 드립니다.
-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정합니다.



부산시 동래구 영동2동 8-8 불교충지종 정각사
문의처 : 051-552-0705/0701
051-552-7902(FAX)



정각불교문화센터는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기 위한 불교문화공간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는 승속의 경계를 허물고 이 사회를 부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는 부처님에 대한 숭배와 고요적인 수행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건전한 정신으로 우리 사회에 마음의 여유와 자비로운 인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불교적 문화 공간을 창출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하에 정각불교문화센터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